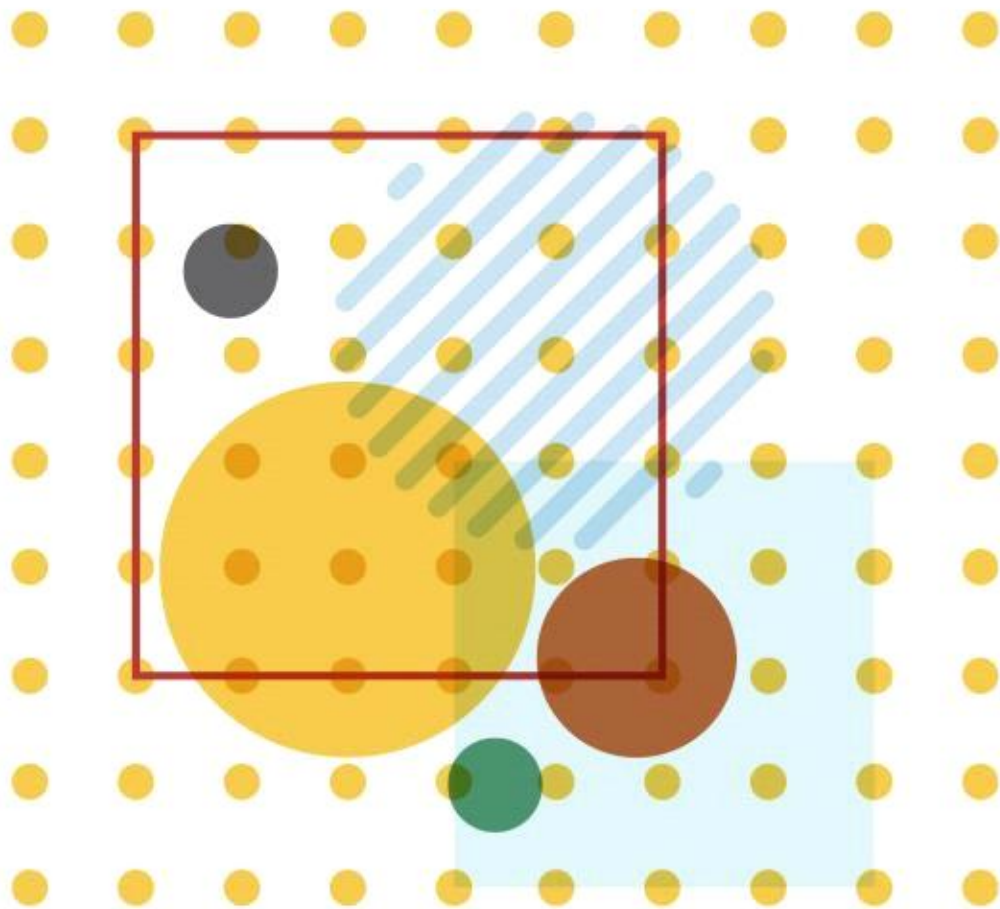


2021년 제3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민간의 네트워크 법인 설립

수탁법인의 설립 경로와 운영방식 검토



2021. 7. 30.(금) 14:00-17:00

아산시 송악면 농촌뜨락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ChungNam Institute

목 차 CONTENTS

제3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

“민간의 네트워크 법인 설립”

개 요	05
-----------	----

추진 목적 및 프로그램 일정표

〈1부〉특강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운영 방향”	09
---------------------------------	----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2부〉사례발표

“수탁법인 설립 과정과 애로사항, 제안 등”	37
--------------------------------	----

이창신 사무처장((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37

박두호 이사장((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53

권영진 이사장((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65

노승복 센터장((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75

“마을 네트워크 법인 관계자 설문조사”	83
-----------------------------	----

이윤정 책임연구원(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3부〉종합토론

“수탁법인의 효율적·민주적 운영방안”	95
----------------------------	----

좌장: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지정 토론: 사례발표자 5인, 행정 1명, 센터 1명, 외부 1명

〈참고자료〉

“2020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 워크숍 현장스케치”	101
---	-----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1년 제3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민간의 네트워크 법인 설립”

충남은 2015년부터 ‘주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의 10대 과제중 민간영역의 주요과제로 민간 네트워크 법인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관협치 농촌정책의 주민 주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현재 15개 시군중 6개 시군에 민간 네트워크 법인이 설립되고 그 중 5개 법인은 중간지원조직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하다보니 설립과정 및 운영상에서 경험부족과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21년 제3회(총 49회차) 대화마당은 민관협치 농촌정책에서 민간 파트너로서의 역량강화와 법인의 지속성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설립 방법 및 운영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21.7.30.(금) 14:00~17:00
- 장 소: 충남 아산시 송악면 농촌뜨락(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당로 115번길 5, 강당리 108-1)
- 진행방식: 대면+온라인 생중계 병행
 - 온라인 생중계: 페이스북 그룹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groups/cnmaeul/>
- 주최/주관: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도청
- 관련 정보 및 문의 041-406-7402(황유리 연구원)
 - 이메일 cnmaeul@gmail.com, 블로그 www.cnmaeul.net
 - 네이버밴드 충남마을넷 band.us/@cnmaeul

※ 저희 센터에서 발간하는 『마을독본』 14호(2021년 여름호)의 특집주제 “마을네트워크 법인, 농촌마을정책의 주인공”을 읽고 참석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세부 프로그램

사회: 정석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시간	진행내용	비고
13:30 ~14:00	참가자 등록 및 안내	발열체크 후 입장
14:00 ~14:10	개회 및 참가자 상호 인사	
14:10 ~15:30 (80분)	<1부> 특강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운영 방향” - 발표: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2부> 발표 “수탁법인 설립과정과 애로사항, 제안 등” 1. 사례발표 - 홍성군: 이창신 사무처장-(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 천안시: 박두호 이사장-(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 보령시: 권영진 이사장-(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 청양군: 노승복 센터장-(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2.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마을 네트워크 법인 관계자 설문조사” : 이윤정 책임연구원(마을연구소 일소공도)	20분 각 10~15분 내외
15:30 ~15:40	휴식 및 교류	
15:40 ~16:50 (70분)	<3부> 종합토론 “수탁법인의 효율적·민주적 운영방안” • 좌장: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 토론: 사례발표자 4~5명, 행정1, 센터1, 외부1명 • 주요 토론과제(예시) - 네트워크 법인의 설립경로에 따른 운영실태 비교 - 민간위탁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 수탁법인의 수익사업 영역과 가능성 - 수탁법인으로 재단법인의 장단점 검토 - 수탁법인의 중장기 미래상 등	2021년 마을독본 여름호 특집주제 연계
16:50 ~17:00	광고 및 정리: 차기 일정 등 홍보	

※ [참고] 월별 운영계획

일시	회차	개최지	주제(예시)	비고
3.26. (금)	1차	(종합) 공간U	· 2021년 대화마당 취지, 주제, 방향 소개 · [주제]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 시스템(종합) · 전체 시스템 종합토론과 핵심과제 확인	비대면 온라인 송출
5.28. (금)	2차	천안시 ->당진시	· [주제] 농촌마을만들기협의회의 설립과 운영 · 당사자 협의체의 중요성과 역할, 과제 확인	비대면 온라인 송출
7.30. (금)	3차	아산시	· [주제] 민간의 네트워크 법인 설립 · 수탁법인의 설립경로와 운영방식 검토	전체 집합 온라인 송출
9.24. (금)	4차	금산군	· [주제]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 행정의 정책 협업과 전문성 강화 방향 검토	전체 집합 온라인 송출
11.26. (금)	5차	청양군	· [주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 · 통합형 설치유형과 운영 방향, 쟁점 토론	전체 집합 온라인 송출
12.17. (금)	6차	(종합) 공감마루	· [주제] 시군 센터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 · 14개 시군 센터별 우수사례 각 1건 발표	전체 집합 온라인 송출 (공감마루)

※ 제7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상하반기 직무연수, 농촌정책 워크숍 일정을 반영하여 변경 가능

- * 개최 장소는 마을 현장(권역 센터) 혹은 시군 지원센터를 원칙으로 함
- * 향후 상황(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개최 시군 및 시기, 주제(쟁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ChungNam Institute

제3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아산)

【1부】 주제발표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운영 방향”

-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2021년 3회차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설립과 운영, 쟁점

1. 민간단체 '칸막이'를 넘어 농촌발전을 선도하는 민간네트워크 구축
2. 타 지역의 시행착오 경험에서 배우며 우리 지역 고유의 경로 개척
3.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공동학습과 토론의 공론장 확대

2021. 07. 30(금)
아산시 송악면 농촌뜨락

구자인 소장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은
삶과 얹이 하나 되는 농민의 실천을 바탕으로
온전한 마을의 삶을 상상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인
마을학회 일소공도의 취지에 따라 설립했다.

마을사람들 스스로 공부해서 마을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마을학회 일소공도의 다종다양한 실천 가운데 하나인
연구와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한다.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는
일소공도의 가르침은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의 연구 학습 활동 등을
이끄는 지침이다.

넓게 보고, 깊게 탐구하며,
농업·농촌 문제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쓴다.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걸어온 길

주요 연혁

2017.6. **마을학회** 일소공도 창립(홍동면, 마을활력소)

2018.9. 부설 연구소 협동조합 설립(장곡면 도산2리)

2021.3. 연구소 공간 이전 (장곡면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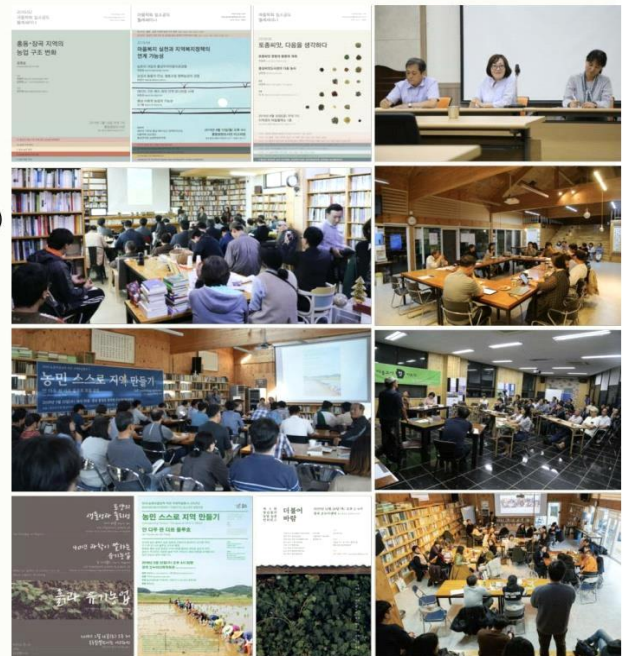
마을학회 월례세미나

2019 **유기농업**, 농업구조 변화, 청년, 마을복지, 주민자치, 토종씨앗, 농업환경보전, 집락영농, 중국사회생태농업, 지역농지 등

2020 사회적농업, 홍동장곡 지역연구, 지역사회돌봄, 청년농 지원, 장곡면2030 등

농업·농촌 위탁연구 수행(2019~2020)

돌봄농업 실천매뉴얼 개발, 지역주도 **청년교육농장** 실천방향과 과제, 지역단위 **청년 친환경농업인** 육성, 청년 경로탐색 프로젝트 확대 및 발전방향, **농촌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농촌공간 관리방안, **농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시범계획 수립 및 주체형성 과정(홍동·장곡 사례 연구), 고부가가치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성격, 지향점, 운영방향

농업과 농촌을 **현장에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농촌 **주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대안을 찾는

주민자치회 활동과 밀착하여 지원하고 응원하는

'지역문제 해결형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농촌 사회의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성을 응원하는

연구자 조직

면 단위 연구소

자문기구

창업보육센터

중간지원 조직

1. 기본방향

“구조적 과제에 근본적인 대응”

[마을공동체의 꿈] 지방자치와 풀뿌리 주민자치운동
→ “전지구적으로 생각, 지역적으로 실천”이라 했는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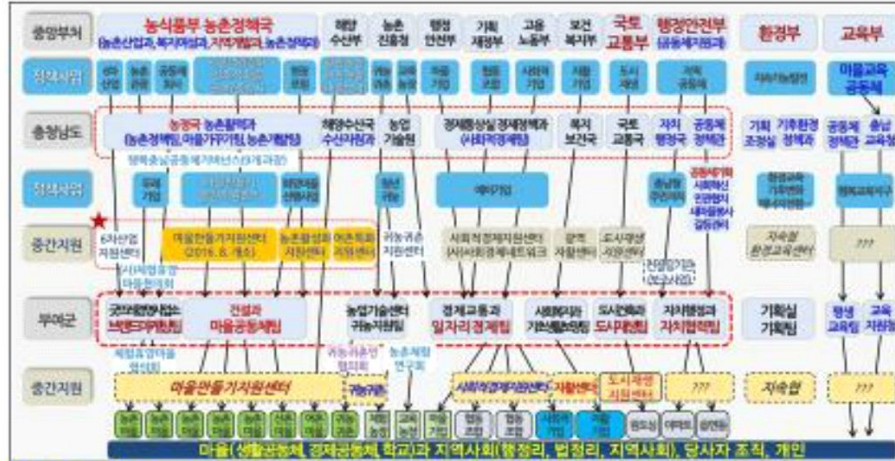
[참고]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의 역사 : 한 뿌리에서 나온 다양한 흐름



마을 의제도 행정 '칸막이'가 민간 '칸막이'를 확대재생산

과제1. 정책의 **칸막이**가 너무 심하고 너무 복잡하며 **현장 전문성**이 약하다
= **종합계획**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계획협약**도 기대하기 어렵다.

[예시] 충남도 마을공동체와 관련 정책(서비스)의 전달체계



도시재생뉴딜, 중심지활성화, 푸드플랜, 신활력플러스, 마을교육공동체... → 융복합 신규업무확대중

해남군: 인구정책과, 군정혁신단(혁신전략팀), 안전도시과(도시재생팀), 총무과(행정교육팀), 농정과(농정기획팀),
유동지원과(농촌융복합팀, 먹거리전략팀), 건설주택과(마을공동체팀),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팀)

수요자 주민 관점에서 행정 사업의 **총괄조정**과 **연계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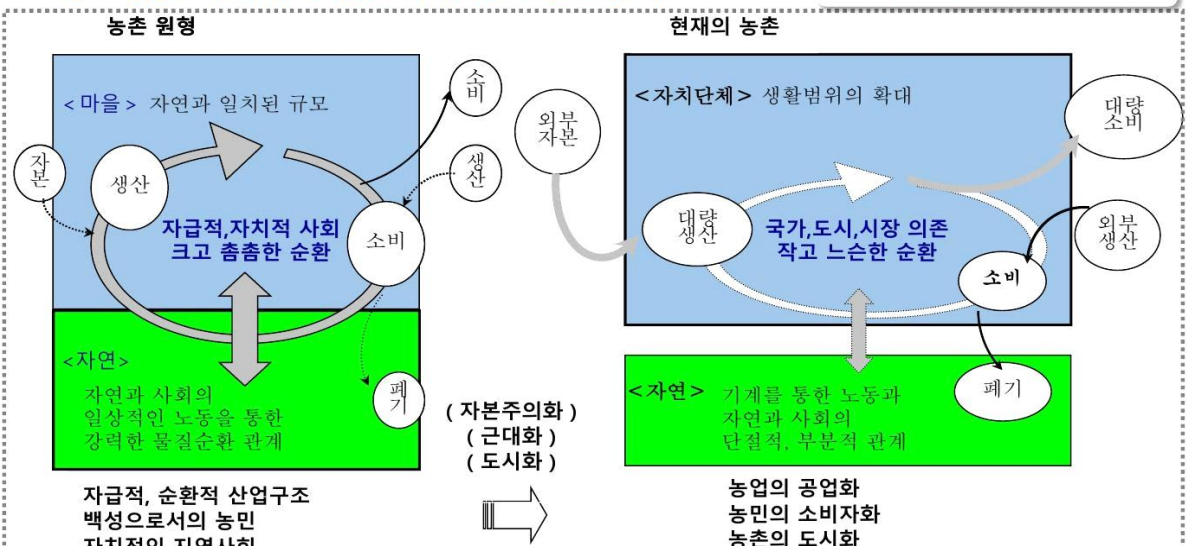
도시와 농촌 : 불균등 발전의 역사

농촌마을의 변화 : 국가와 시장

지역사회의 역사적, 구조적 인식

<그림> 농촌 사회에서 생산과 생활의 변천형태

지역(주민)의 자발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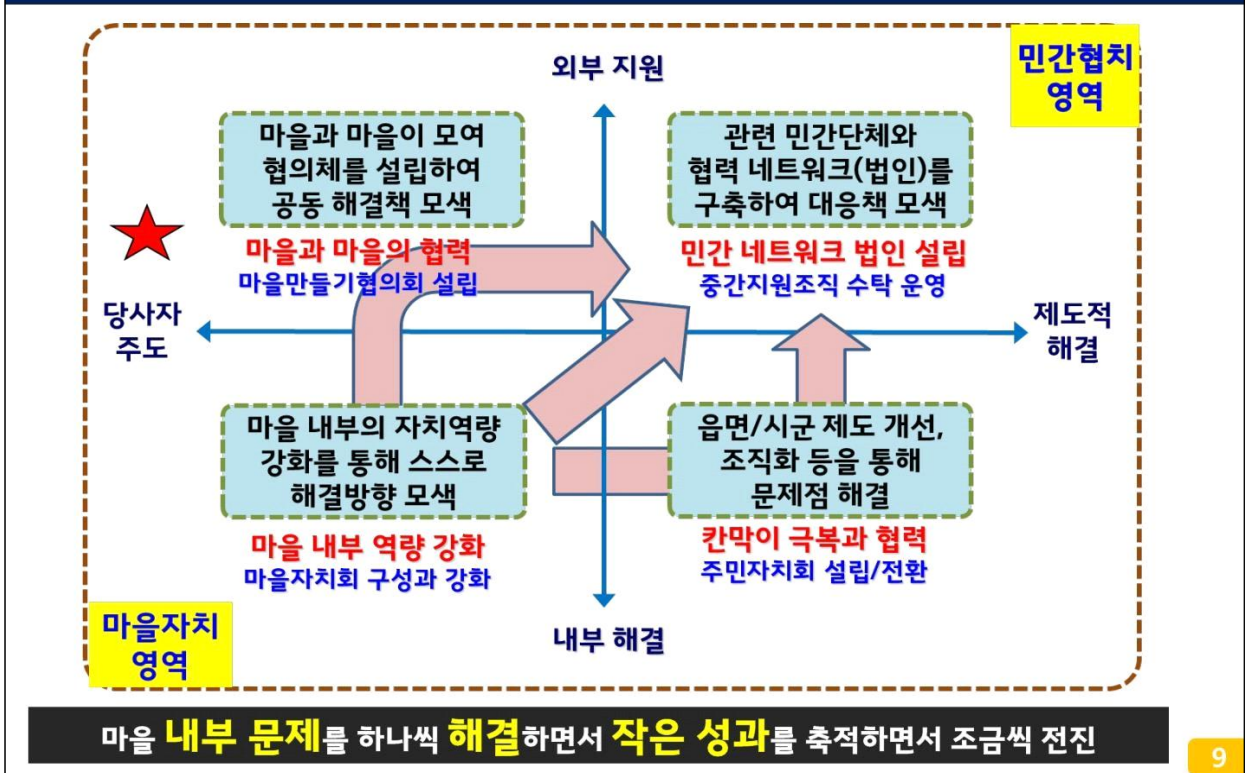


주 : 1. 원형의 크기는 양적인 규모를 의미한다.

2. 화살표의 실선은 주된 흐름을, 점선은 부차적인 흐름을 의미하고, 두께는 그 양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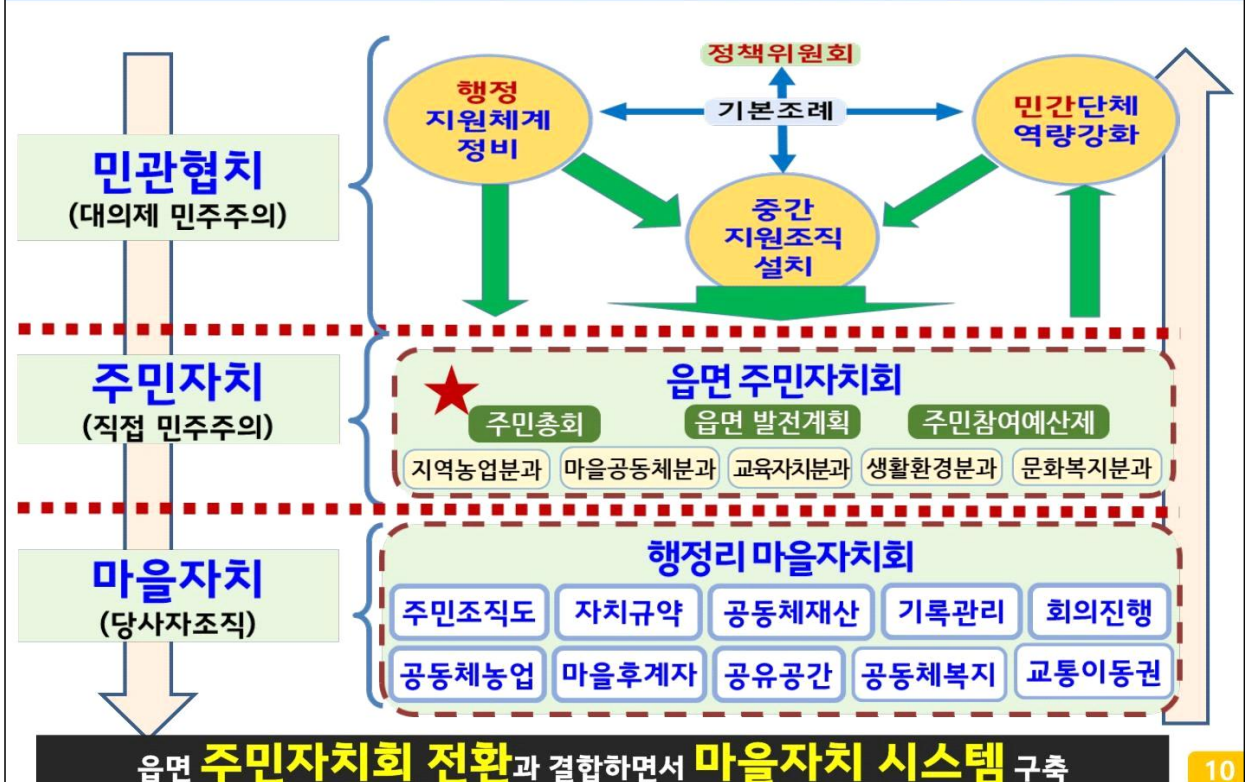
농촌마을에 대한 희망은 있는가? : 사회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리1] 마을(주민) 공통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경로
 → "우리 마을의 문제는 다른 마을의 문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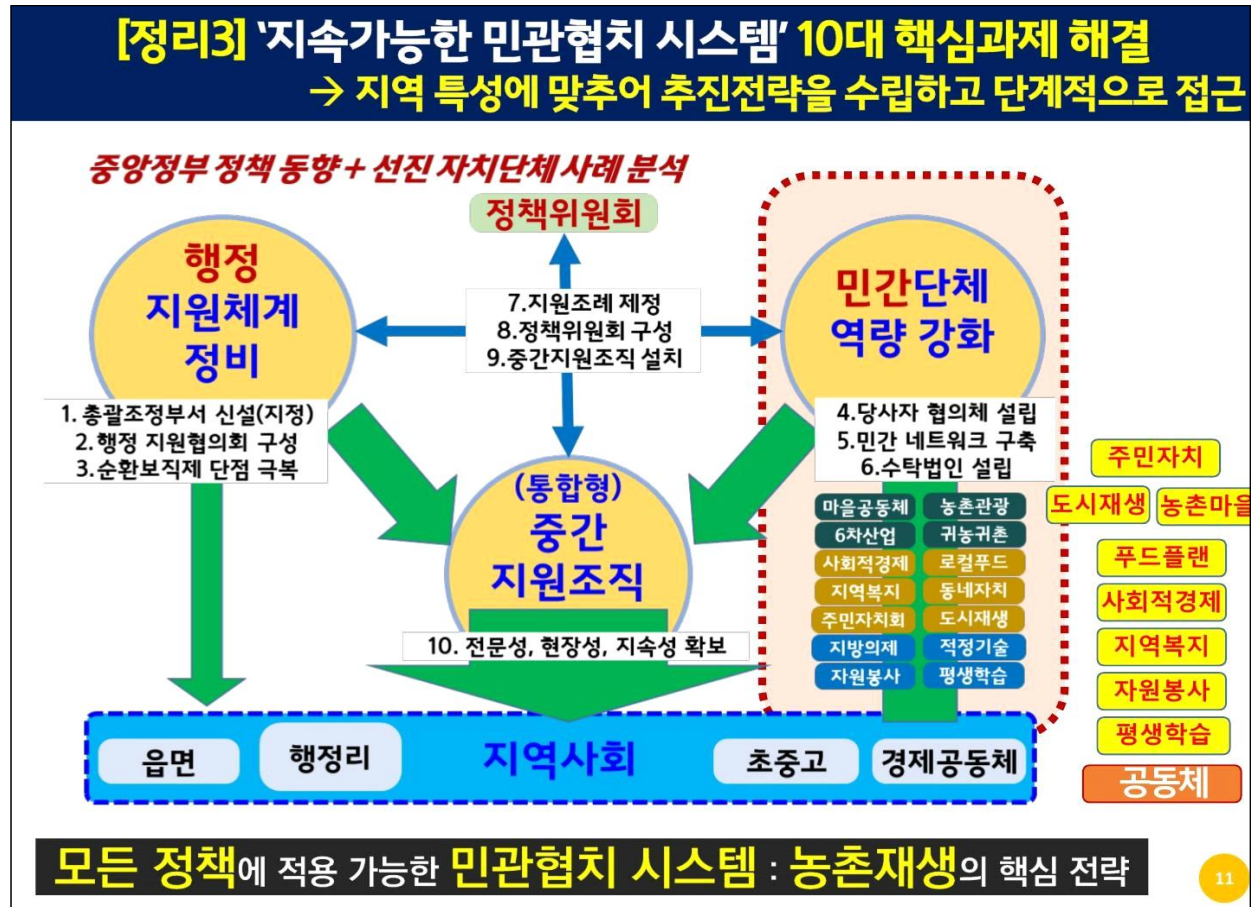


9

[정리2] 농촌마을정책의 민간협치와 주민/마을자치 시스템
 → 전체를 보면서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현장 문제 해결



10



2. 걸어온 길

“충남에서의 논의 경과와 현재”

[추진과정] 행정의 먼저 모범을 ... 지역 실정에 맞는 경로 찾기

2015년 추진경과 : 지속적인 학습과 토론 과정

→ 2015년부터 본격 추진



- 충남도 3농혁신 특화(공모) 사업 착수 : 02. 02(월)
- 3농혁신대학, 마을만들기 과정 운영 : 04.16~17(1박2일)
- 제2차 중간지원조직설립지원 워크숍개최 : 07.22~23(1박2일)
- 중간지원조직설립 관련 학습 토론회 : 10.14(수)
- 제2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 11. 26~27(1박2일)



13



1. 행정 지원 체계 정비 방향
2. 민간네트워크 구축 방향
3. 중간지원조직 설치 방향



[총합] 시·군명 : 금 산 군 구호 : ㅁㅁ ㅁㅁ ㅁㅁ 산 군

1. 효율적인 행정지원 시스템
 - 7개과 부서 - 마을만들기가 핵심업무.
 -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신설.
 - 전담부서 - 기획, 실행 (관리 및 감독)
 - 협력부서 - 예산지원, 계약, 행정
 - 민생지원 부서, 기관제 도입, 직위공모제 도입
 - 전문계약직 채용
2. 민간네트워크 구축 방향
 - 마을만들기
 - 이장 회의
 - 마을대표
 - 마을대표 (1차 회의 6회)
 - 마을대표
 - 마을대표
3. 중간지원조직 설립방향
 - 필요성 - 전문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향상.
 - 활동영역 - 정관, 사내, 복지, 교육, 문화 등
 - 명칭 - "희망마을 길라잡이"
 - 2015년 10월 20일 제정
 - 로드맵 - 참여단체 회의 → 법인화 → 운영제정 → 시행

참가자

- ▶ 조 정 배
- ▶ 기획자 : 황 의 기
- ▶ 발표자 : 조 정 배
- ▶ 조 원 : 김재배, 한디재, 조희, 임성희, 김려
- ▶ 참가소감, 권의사항 등
- ▶ 제안된 사항
- ▶ 참석이
- ▶ 필요성



14



2016년 충남대회 (아산, 11.3~4) _ 기획행사1

- 첫 공식 행사



제3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2일자 기획행사1

충남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방향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향후 경로를 중심으로 -

2016. 11. 4(목)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제3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사례발표 - 본과토론 우리의 이야기

기획행사 충남 마을만들기의 네트워크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진개요

- 진행결과
 - 사회 및 발제 : 구자인(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 토론자
 - 1) 각 지자체 센터별 담당자
 - 2) 강릉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권상돈 센터장
 - 3) 서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김종오 사무국장
- 참석인원 : 17명

토론결과

- 1) 각 센터의 행정적 의제들을 월례 지자체장 토론회의에 상정하여 센터의 주요 사안들이 행정적으로 소통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
- 2) 광역센터에서 갈등관리 조정위원회(가칭) 운영 필요
- 3) 각 센터별 현황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간 진행현황 파악 및 연대와 협력 강화

4. 충남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의 경로 _ 로드맵 구성

- (1) 필요성 : 민간 주도의 마을만들기 강화, 충남 광역 센터 수탁법인 설립
- (2) 방법론 :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월1회), 충남대회(연1회) 등 활용 - 지역 공감대 형성
- (3) 형태1(구성원) : 마을협의회 임원, 지원센터장, 법인 이사장 등 개인적 참여
- (4) 형태2(법인) : 충남마을넷=수탁법인(일원화), 직원 참여 사회적협동조합
- (5) 일정 : 2018년 상반기 조례 개정, 2018년 6월 법인 설립, 2019년 1월 민간위탁



2017년 충남대회 (보령, 11.2~4) _ 분과토론3-1

- 2차 공식 행사



충남 마을만들기
광역 네트워크 포럼
(2차)

제4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분과토론3-1. 2017. 11. 3(금)

충남 마을만들기 광역 네트워크 구축과 당면과제

“2018년 로드맵에 대한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자인(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제4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분과토론

[분과 3-1] 광역 마을넷 구축

충남 마을만들기의 네트워크 구축 좌담회



추진개요

- 프로그램 소개
 - 시군 상황공유, 마을협의회와 지원센터 광역 네트워크 구축
 - 향후 충남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설립과 법인화 단초 마련
- 사회 및 발제 :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 토론
 - 충남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당사자 (법인 임원 및 이사, 센터장, 사무국장 등)
- 참석인원 : 22명

토론결과

- 1) 시군 추진 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공유
- 2) 광역 마을넷 구축 로드맵 공유 및 구축 방향 토의
- 3) 민간협치 거버넌스 구축 현황과 지속방안 토의
- 4) 지속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범위와 방법 토의

광역 마을넷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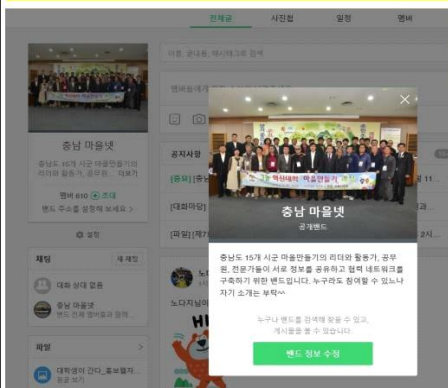
③ 2018년 주요 일정(안)

- 1월중 : 지원센터 상근자 1박2일 직무연수
(이와 병행하여 시군 네트워크 및 광역 네트워크 구축 논의)
- 2월중 : 네트워크 구축 준비위원회 사전 회의
(발기인 성격의 15인 내외 모임)
- 이후 매월 회의 개최(5회) : 시군 순회 '대화마당' 연계
(조직형태, 사업/재정계획, 조직 및 인선, 정관 등)
- 8월중 : “충남마을넷 000” 설립 - 필요시 법인화, (반)상근 1인
- 9~12월 : 활동 경험 축적, 2019년 세부계획 수립 등

17

[소통] 대화와 소통 활성화 : 뉴스레터, 잡지, SNS

네이버 밴드(충남 마을넷)_회원 1,165명



매일 200명 내외 접속,
매일 20명 이상 콘텐츠 작성

오프라인 잡지(마을독본)

계간지, 2018년 봄호(vol.3)
800부 인쇄, 400부 무상배포



온라인 소식지(뉴스레터)

매월 말일 발간,
2018년 5월호(vol.14)



[illegible]

- ① **지역(14개 시·군)**
- 기초+광역 **80명** 상근
- ② **주요사업**
- 혁신플랫폼(가칭)
작은 플랫폼 -
마을기지원센터
- 공익활동지원센터
- 1인 창업 지원
- 어촌특화지원센터
- 평생교육진흥원
- 인재육성재단
- 문화재단
- ③ **예산**
- = 있도록 지원



시군 소액 컨설팅 연구용역(2년 연속) + 마을대학
3농정책대학 마을만들기과정(매년1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매년11월)

15개 시군 순회 방문 컨설팅(매년 2회)
10개 시군 센터, 2박3일 집중연수(매년 2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매월 1회)
뉴스레터(매월1회), 마을독본(분기1회)



[현재] 충남 광역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요 활동(2021.02)

계간지 **마을독본** 발간
(2017~20, 총14회)

월간 **뉴스레터** 발송
(총4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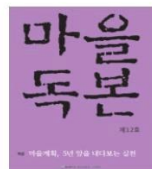
제9호(2020.04)
마을회관



제10호(2020.06)
마을경관



제11호(2020.09)
농촌마을건축



제12호(2020.12)
농촌마을계획



시군순회 **대화마당** 개최
(2016~20, 총46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홍성	광역	광역	광역	광역
2	아산	홍성	청양	예산	아산
3	논산	금산	3농대학(청양)	천안	태안
4	예산	천안	예산	서천	당진
5	보령	보령	홍성	청양	광역
6	천안	서천	아산	금산	보령
7	청양	예산	당진	논산	광역(홍성)
8	서천	아산	서천	광역	광역
9	태안	공주	태안		
10	광역	광역	광역		

14개 시군 정책시스템 구축 연구용역(2년 연속)

15개 시군 순회 방문 컨설팅 (연간 2회)

광역 및 시군 센터 직무연수 (2박3일, 연간 2회)

광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월1회 정기회의)

충남 광역 농촌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작은 국제학술행사

정책연구회, 정책워크숍

충남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연구원

제5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in 천안

- 쟁점 토론 -

“마을만들기의 협업과 지역 네트워크”

2017. 6. 30(금)

구자인(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수탁법인
워크숍

오늘의 주제 : “마을만들기의 협업과 지역 네트워크”

“**마을의 힘**은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주체들의 신뢰**와 **융합적 협력**,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상적인 **교류와 연대의 네트워크** 문화에서 나온다.
... 공동의 목표를 위해 **차신에도 합의**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한다.**” (2015 전국 마을선언 초안, 제21절)

“현재 충남의 일부 지역에는 마을만들기의 **위원장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법인 설립**도 시도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가야만 할 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조직해야 **지혜로운 길**이 될까요? 항상 바쁜 마을 위원장님들을 도우면서 ‘옥상옥’ 조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초대장 일부)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과 운영을 둘러싼 이해와 쟁점

2019. 7. 19(금) 2019. 7. 19(금) 2019. 7. 19(금)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농촌마을정책

2020. 7. 10(금)
구자인 센터장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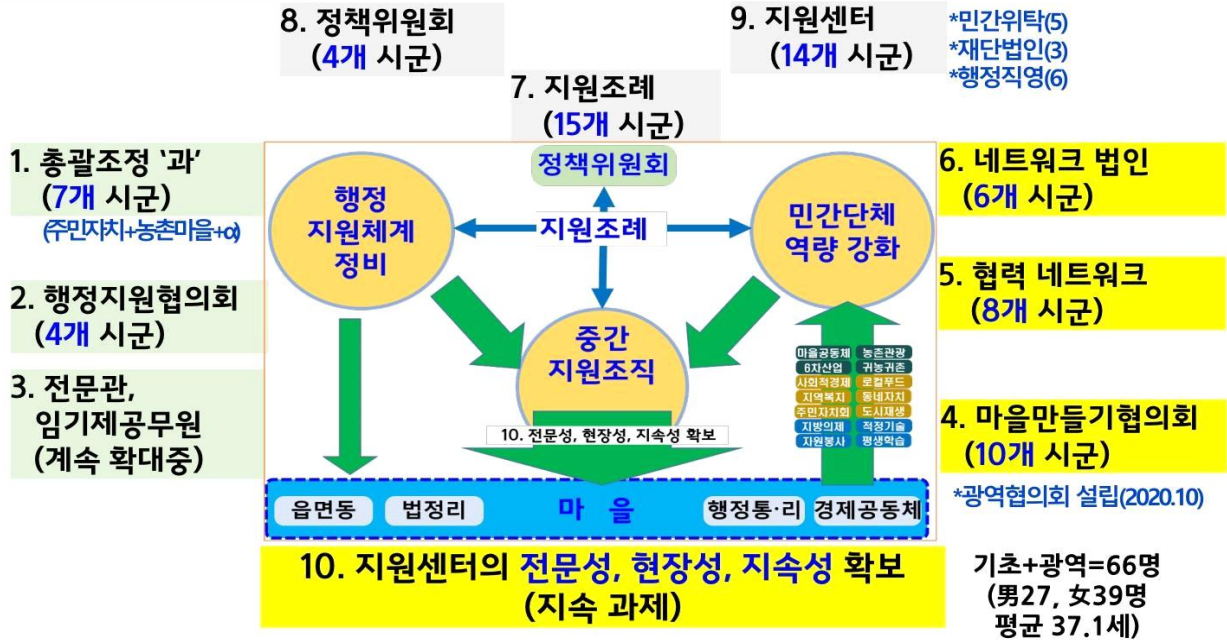
[현재]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법인 설립현황(2021.07)

지역명	법인 명칭	설립년도	조직화 방식	비고
홍성군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2016. 4.	관련 협의체의 대의원 방식	'홍성통'운영 경험 발전
천안시	(사)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2016. 5.	리더 개인과 전문가 주도	협의체 미발달 지역
보령시	(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2016.12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도 + 전문가 보완	일반 모델
예산군	(사)예산군행복마을네트워크	2017.11.	마을대학 5회로 협의체 조직화 + 네트워크	마을대학 육성 모델
서천군	(사)서천마을누리네트워크	2019. 4.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도 + 지속협 연계	일반 모델
금산군	풀뿌리주민네트워크 (사)금산&사람들	2020. 1.	지원센터 주도 + 분야별 개인 조직 결합	지원센터 주도형

→ 기타 아산, 공주 등에서도 관련 조직 설립. 서천은 민간위탁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

[종합] 충남 시군 자치단체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 시스템' 구축
→ 만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빠르게 혁신중

"광역은 광역답게"



농촌 마을이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정책 시스템** 구축(1단계)

25

3. 시군 네트워크 법인 사례

"다양한 경험, 정책의 백화점"

[민간]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법인 설립(공동학습과토론회)

[사례1]

(사단법인)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네트워크 = 기관, 단체 대의원 방식

법인 산하 상근자 수: 총 12명

- 법인사무국: 1명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5명
- 청년마을조사단: 3명
- 도시재생지원센터: 3명

1) 수탁사업: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 보조사업: 청년마을조사단 역량강화등

3) 계약사업: 희망마을선행사업 컨설팅

4) 목적사업: 마을 네트워크 지원

→ 2018.10. 도시재생지원센터

추가 수탁 결정

마을만들기(7명)	사회적경제(6명)	농도교류(4명)	전문가집단(3명)
• 희망마을협의회 • 권역발전협의회	•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체험관광협의회 • 귀농지원연구회	• 재능풀

4대 영역별 대의원 총 20인

총 회 (=대의원회)

정상진, 조병혜, 강연표, 임영택(이사)

이사회

이사장 포함 5인

염창선(이사장)

감사

1인 조권영

법인사무국

구분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지원 센터 사업	수탁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사업	10개	140,000	교육컨설팅연구, 홍보 등	
	보조	청년마을조사단	25개	200,000	신규마을 마을조사 및 마을지 제작 청년 조사단원 7명 채용	
	보조	시군역량강화사업	14개	250,000	준비지구 개발, 완료지구 지원 네트워크 구축	
	계약	희망마을 선행사업	7개	210,000	마을발전계획 후 소액사업 실천단계	
	목적	기타 마을관리 등	-	-	회의관리, 사업신청, 활동지원 등	
네트 워크 사업	보조	청년정책 공모사업	2개	30,000	지역이해를 통한 지역 삶의 가능성 확인	
	보조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1개	-	지역 네트워크 관리 인력지원	총사업비 830,000

[사례2] (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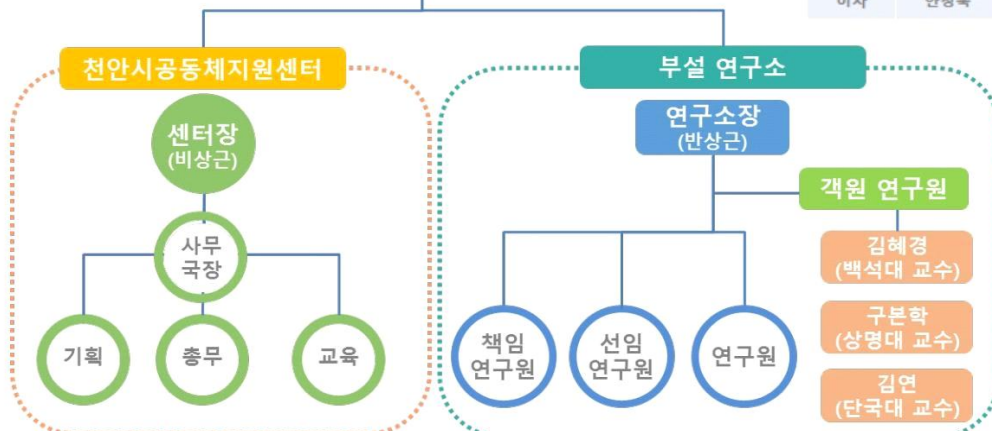
- 2015년 2월 민간에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논의
- 2015년 9월 민간 주도로 '천안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결성
- 2015년~16년 4월 네트워크 월례회의(6차)→사단법인 설립 결의
- 2016년 5월 (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설립 (이사장과 8명 이사 + 40여명 회원)
- 2016년 8월 천안시 공동체지원센터 수탁
- 2017년 6월 함께이룸 부설 연구소 개소

→ 네트워크 = 영역별 전문가 중심으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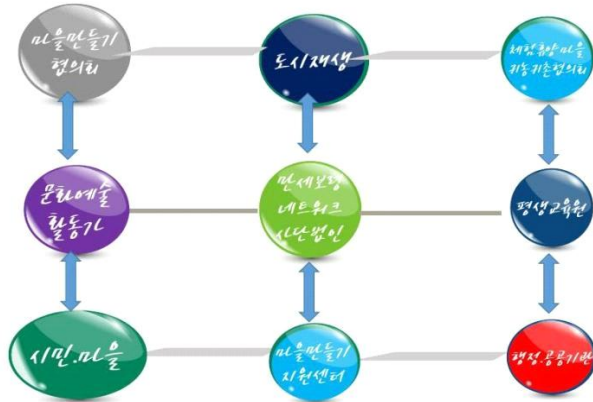
이사회 구성

구분	성명	구분	성명
이사장	김의수	이사	이상학
상임이사	박두호	이사	정경록
이사	강윤정	이사	조기문
이사	공정래	이사	김태연
이사	박현미	이사	김태영
이사	안상욱	이사	주 덕

이사회



[사례3] (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 농촌마을 + 도시재생 + ...



• 보령시마을만들기협의회 : 충남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중간지원조직]

- 마을만들기지원센터(5명) : 민간위탁 운영
- 보령서천 체험관광유통네트워크사업단(3명) : 민간위탁 운영
- 도시재생지원센터 : 행정 직영 운영

[행정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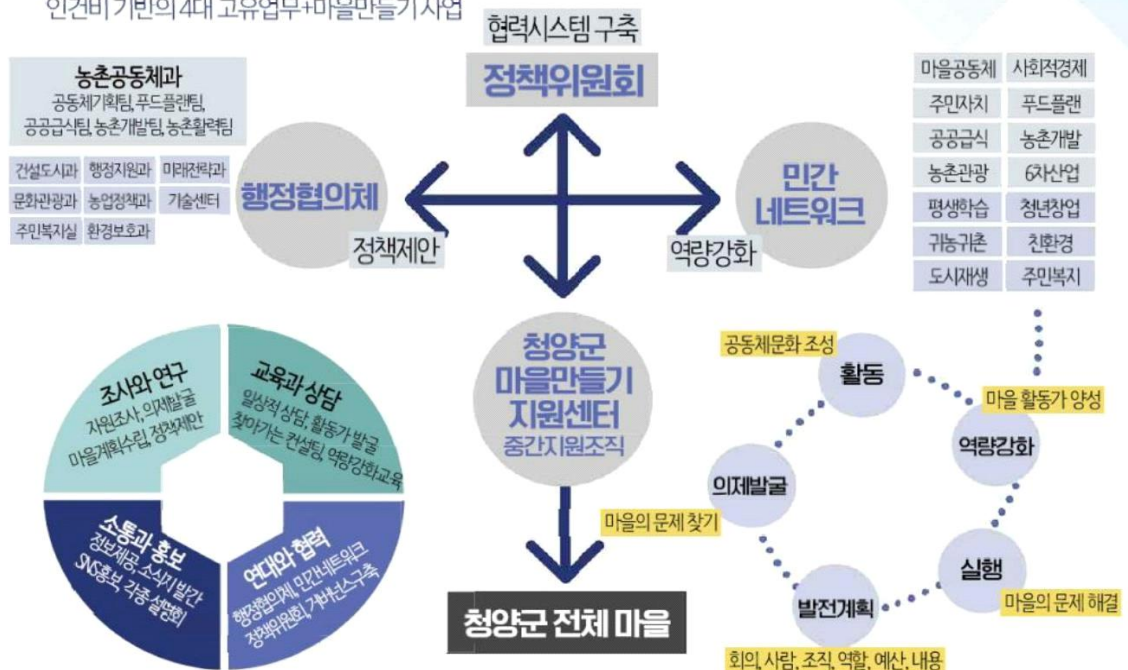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마을공동체팀(5명)



[사례4] 청양군 마을만들기 시스템 : 마을만들기협의회+재단법인

비전 | '상생협력의 지속가능한 청양군 마을만들기'

인건비 기반의 4대 고유업무+마을만들기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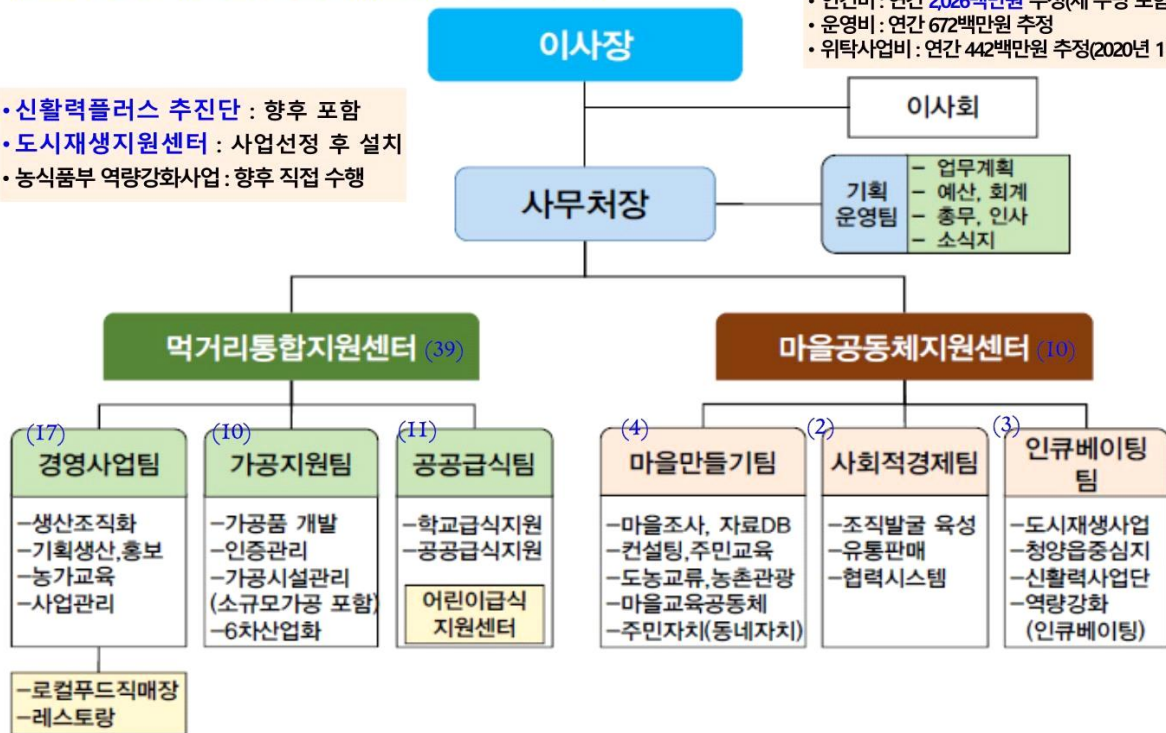


[참고] 청양군의 통합형 재단법인 설립 구상 _타당성 연구용역 10월 완료

→ 농촌공동체과가 신설되었기에 통합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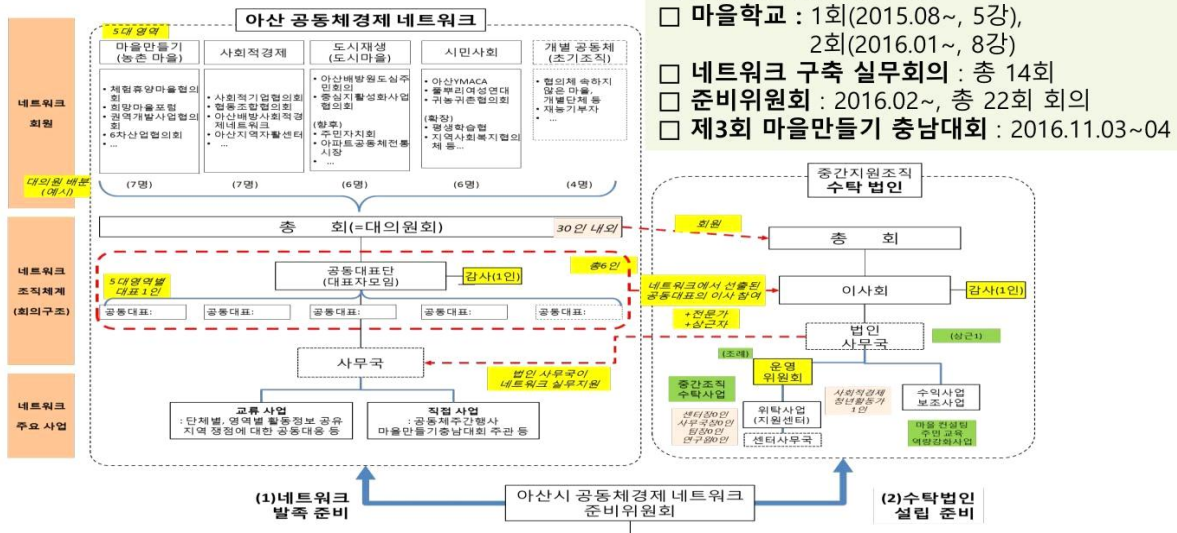
-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 향후 포함
-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선정 후 설치
- 농식품부 역량강화사업 : 향후 직접 수행

- 인력 : 총 54명(공무원 파견 7 포함)
- 인건비 : 연간 2,026백만원 추정(제수당 포함)
- 운영비 : 연간 672백만원 추정
- 위탁사업비 : 연간 442백만원 추정(2020년 1년차)



31

[사례5] 아산시 민간네트워크 구축과 수탁법인 설립(안) _ 2016.05 당초 구상



아산시공동체경제네트워크 = 개별 마을과 개인의 결합

- 설립일 : 2016. 11. 18.
- 참여인원 : 59 마을, 단체의 60명

항목	단체수	이사	회원	비고
마을공동체	24	8	24	마을대표(이장, 위원장)
도시재생	2	2	3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회적경제	9	1	9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6차산업 등
시민사회단체	8	5	8	평생학습, 시민운동,
문화예술	6	1	6	문화, 예술, 공연
기타	10	2	10	소상공인, 귀농귀촌, 자활, 복지관 등
계	59	19	60	

32

[자료] 아산시 제1회 마을학교 5차 종합토론회(2015.09.21)

[제안1] 아산시 민간 네트워크의 조직 형태 및 수탁법인과와의 관계

[기본원칙 (제안)]

- 1) '옥상옥' 문제점 해결 → 조직과 회의의 단순화
- 2) 주민과 지역사회의 관점 중시 → 조직 이기주의 극복
- 3) 소통을 통한 합의 과정 존중 → 이상과 현실의 조화, 차선의 합의



쟁점1) 민간 네트워크 조직의 성격 → 1안=대중조직, 임의단체

- 1안) 개별 마을과 단체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총회 중심의 대중조직
- 2안) 사업별 협업체 및 네트워크 조직이 중심이 된 협의조직

쟁점2) 민간 네트워크와 수탁법인과와의 관계 → 분리, 전문조직화

- 조직은 분리하되 임원진이 이사회 직접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 권한 행사. 단, 상근자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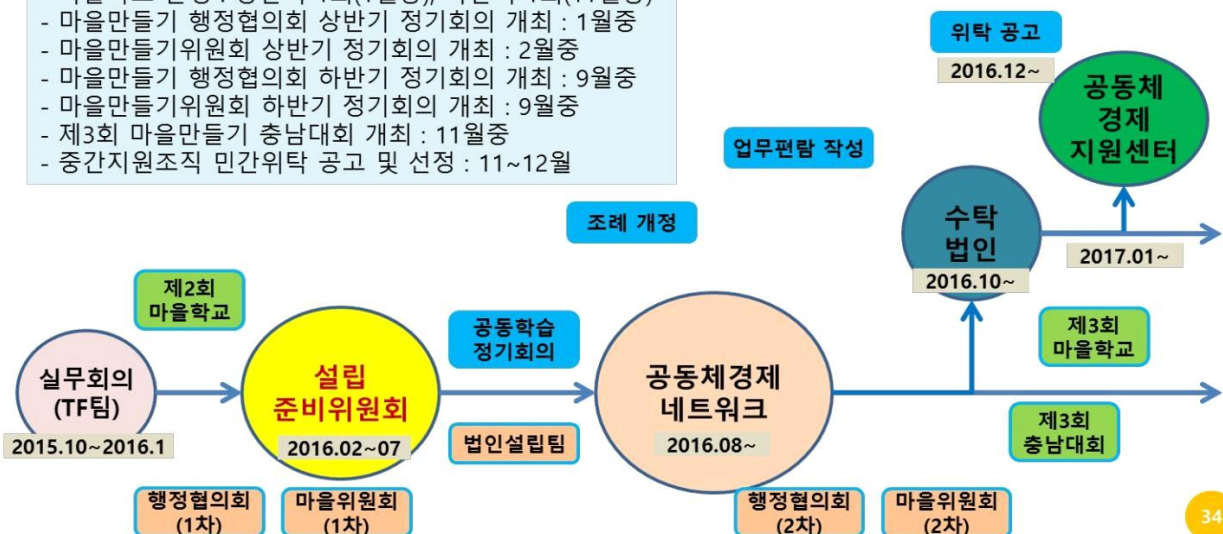
33

[자료] 아산시 제2회 마을학교 7차 종합토론회(2016.02.02)

[제안4] 공동체경제 네트워크 및 수탁법인 설립의 기본 경로

- (1) 2017년 1월 민간 위탁을 전제로 역순으로 일정 배치
- (2) 조례 개정 및 업무편람 작성, 수·위탁 절차 이행 : 행정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전제로 추진
- (3) 마을학교 등 지역사회에 홍보 및 설득 작업 지속 전개 : 교육과 이벤트 등

- 마을학교 운영 : 상반기 1회(1월중), 하반기 1회(11월중)
-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 1월중
- 마을만들기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 2월중
-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 9월중
- 마을만들기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 9월중
- 제3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개최 : 11월중
-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공고 및 선정 : 11~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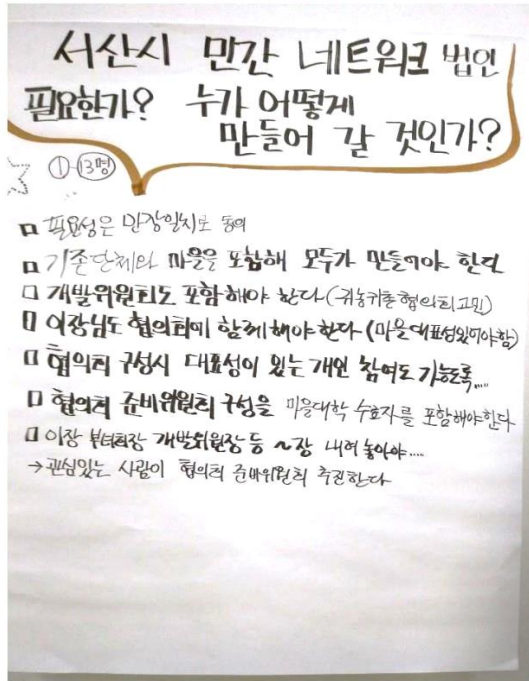


34

[서산시(토론)]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 경로

"필요성은 충분히 동의하는데..." → 2020년에 집중 논의(공익활동지원센터 논의연계)

"네트워크 법인 필요한가?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필요성은 만장일치로 동의

- 기존 단체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
- 추진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개발위원회도 포함해야 한다.
- 이장님도 협의회에 참가해야...(마을 대표성)
- 대표성이 있는 개인도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
- 문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 협의회에 관한 교육부터 먼저 해야 한다.
- 준비위원회는 마을대학 수료자 중심으로
- '~장' 직책 내려놓아야 한다.

4. 설립과정의 3대 쟁점과 미래

"길고 넓게 보며 차이를 존중"

[쟁점]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을 둘러싼 3대 쟁점

→ 아산시 마을대학 도출

[쟁점1]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의 조직 결합 형태

민간협력 네트워크

쟁점1. 구성형태?

[충남 상황]

- 1안을 원칙으로 출발 : 아산, 홍성, 보령, 서천
- 2안을 원칙으로 출발 : 천안, 논산, 금산

홍성 : 홍성통 경험을 확장하여 협의체 임원 중심
천안 : 개인과 단체 활동가들의 자발적 참가 중심

1안) 사업별 협의체의 협력 네트워크

장점

높은 지역대표성, 빠른 의사결정

- 해당 영역의 협의체 중심이라 지역 대표성 인정
- 소수의 협의체 임원 중심으로 조직이 단순 명확
- 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내부 의사결정이 신속

단점

개인 성향 돌출, 임원 부담 과중

- 임원 개인의 주장이나 성향이 갈등 유발 우려
- 임원 개개인의 회의 참여나 업무 부담이 과중
- 중간지원조직을 수탁받지 못한 영역은 소외 우려

2안) 개별 마을, 단체, 개인의 회원제

장점

높은 자발성과 대중성, 합의제

- 많은 마을과 단체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
- 뜻이 맞는 사람들 중심이라 의사 결정 용이
-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의 민주주의 실현

단점

지역 대표성 취약, 개인 역량 의존

- 해당 영역의 정책적 대표성이 취약
- 새롭게 설립되는 당사자 협의체의 역할이 모호
- 임원 개인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

37

[참고]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_쟁점1

"협의회가 모여 네트워크(법인)를 조직해야 한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	반대
① 당사자가 모인 협의체를 기반으로 해야 대중성 을 가지고 의견 반영이 쉽다 ② 공동체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협의회가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지역 대표성 이 있다. ③ 관련 협의회가 4~5개 이상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대표성도 있고 협력 효과 도 크다.	① 뜻이 맞는 개인과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힘을 모으기 쉽다 . ② 협의회가 여럿 모이다 보면 불협화음만 많고, 회의도 많아져 피곤하니 가볍게 출발 해야 한다. ③ 네트워크 조직은 간단한 형태가 되어야 의사결정도 쉽고 일(사업)도 효율적 이다.

협의회 + 협의회 + 협의회(준)... → 네트워크
개인+전문가+동아리+협의회... → 네트워크

38

[쟁점2] 민간네트워크 조직과 수탁법인과의 관계 : 장단점 비교

[충남 상황]

- 1안을 원칙으로 출발 : 천안, 홍성, 보령, 서천, 금산
- 2안을 원칙으로 출발 : 아산

홍성 : 홍성통 민간영역(지역협력네트워크) 법인화
아산 : 분리형을 장기간논의행, 최종적으로 무산

1안) 일치형 ‘민간 네트워크 법인’

장점

대표성과 현장성, 참여도

- 단순한 구조, 높은 집행력, 민간 욕구 파악 용이
- 높은 민간 대표성, 전문성과 현장성 겸비
- 마을, 민간단체의 높은 관심과 참여 용이
- 네트워크 조직과 중간지원조직 관계 설정이 용이

쟁점2. 관계 설정?

수탁 법인

민간협력 네트워크

단점

단체간 갈등, 충돌, 불안정

- 큰 협의체가 법인 주도, 단체간 이해관계 충돌
- 법인 이사진의 잦은 교체로 내부 의사소통 우려
- 네트워크 조직의 고유활동 저하 우려
- 임원의 전문성 결여 우려

2안) 분리형 ‘별도 수탁법인 설립’

장점

전문성과 안정성, 지속성

- 네트워크 조직은 자체 고유활동에 집중 가능
- 법인은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객관적 입장 견지
- 네트워크 조직은 행정과 적절한 긴장관계 유지
- 법인은 행정 협조와 예산 확보, 조직 안정성 용이

단점

이원화, 옥상옥, 지역 괴리

- 네트워크 조직과 법인의 이원화로 갈등 우려
- 임원의 중복으로 ‘옥상옥’ 조직화 가능성 우려
- 법인의 현장 괴리감 발생, 행정 의존 심화 우려
- 중간조직 성장으로 네트워크 조직 역량 약화 우려

39

[참고]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_ 쟁점2

“네트워크 조직은 반드시 수탁법인이 되어야 한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동의(일치형)	반대(분리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간협력 네트워크 조직은 반드시 중간지원 조직을 수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되어야 한다. ② 그래야 마을과 단체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고, 중간지원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③ 가능하면 마을만들기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귀농귀촌, 도시재생 등의 중간지원조직도 수탁 운영하면서 통합형 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간지원조직을 수탁받기 위해 네트워크 법인을 설립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미리 전제할 필요가 없다. 꼭 필요하면 별도로 법인을 만드는 것이 낫다. ② 마을위원장, 단체 대표들은 일도 많고, 너무 바쁘니 전문가 중심으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좋다. ③ 네트워크와 법인을 분리해야 행정과 긴장된 협력관계 유지도 도움이 된다.

일치형(대표성) : 네트워크 조직 = 수탁 법인

분리형(전문성) : 네트워크 조직 ≠ 수탁법인

40

[쟁점3]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이사회 구성 : 장단점 비교

[충남 상황]

- 1안을 원칙으로 출발 : 천안
- 2안을 원칙으로 출발 : 홍성, 예산, 보령, 서천, 금산
- 천안 : 활동가 개인, 농민단체 리더, 교수 등이 중심
- 홍성 : 협의체 임원이 대의원 방식으로 선출

1안) 전문가 중심형 '전문법인'

장점

정책 전문성, 추진력, 안정성

- 전문가 중심으로 실무적이고 능동적 역할 수행
- 높은 추진력과 책임성, 의사결정 용이
- 정책적 이해도가 높고 중장기적 기획 가능
- 새로운 신규 사업영역 개척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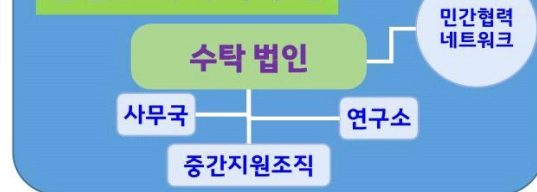
2안) 협의체 임원 중심형 '대표조직'

장점

지역 대표성과 주민 의견 반영

- 민간 당사자의 대표성 확보와 의견 수렴 용이
- 민간단체 임원의 다양한 현장경험 반영 용이
- 협의체 회원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 가능
- 네트워크의 규모 있는 연대협력 행사가 가능

쟁점3. 이사회 구성



단점

낮은 지역 대표성, 현장 괴리

- 지역사회 조직적 기반이 약하여 대표성 논란 상존
- 현장과의 접점이 좁고 의견수렴에 괴리 발생
- 전문성 영역의 차이로 센터 상근자와의 갈등 우려
- 이사진에게 높은 희생봉사 요구로 지속성 무리

단점

이사회 내부 갈등, 비전문성

- 기존 협의체 임원 개편시에 이사회 안정성 문제
- 명망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으로 하향식 활동 우려
- 전문성 수준 차이로 센터 상근자와의 갈등 우려
- 이사회 내에서 협의체 사이의 힘겨루기 우려

41

[쟁점3] 통합형 중간지원조직과 수탁법인의 임원 : 장단점 비교

[참고]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_ 쟁점3

"시군의 지원센터는 통합형 센터가 되어야 한다."

[방법] 쟁점에 대해 '동의', '반대' 입장 표시와 그 이유에 대해 1분 이내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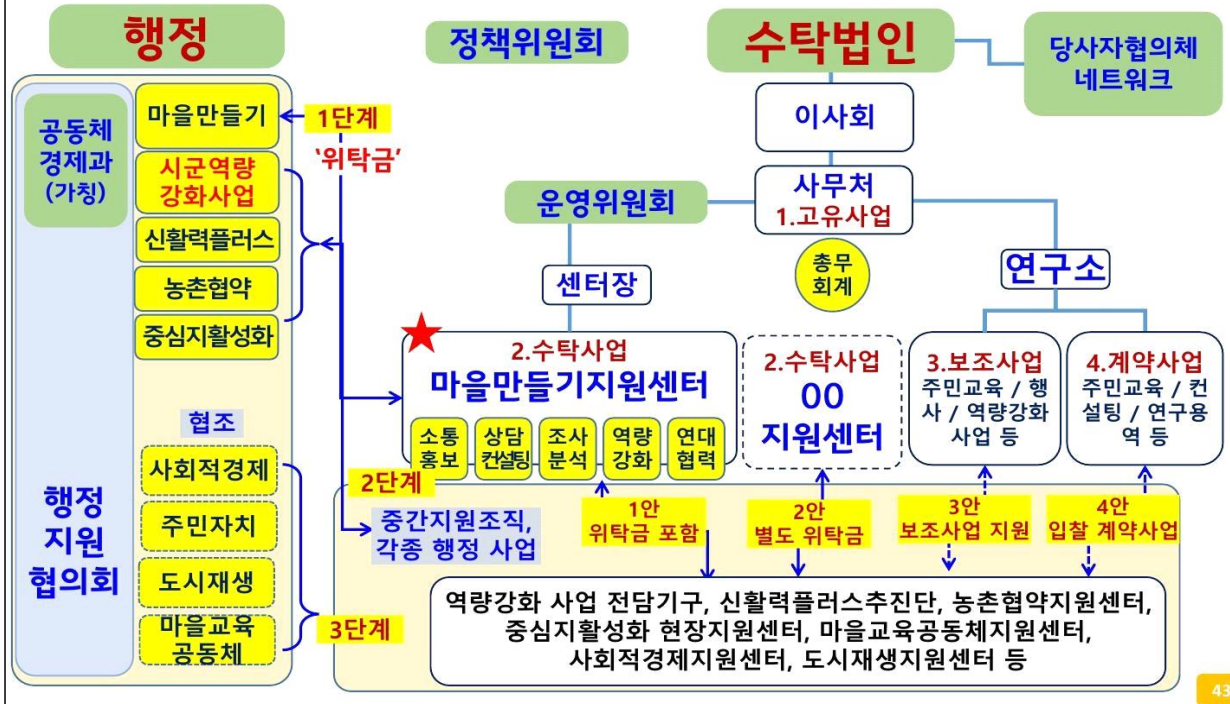
동의	반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으로 중간지원조직 논의가 진행중인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일자리 등의 영역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통합형으로 가야 한다. ② 그래야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효율성도 높고, 사업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다. 분리되면 협력은 기대하기 힘들다. ③ 관련 법과 담당 부서가 달라 초기에는 힘들어도 통합형의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합형을 지향하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미약한 민간 역량을 고려할 때 너무 어렵고 무리한 구상이다. ② 행정도 업무 조정이나 조직 개편이 전제되지 않으면 너무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③ 통합형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 법인도 없고, 역량도 너무 낮으며, 센터에 근무할 전문 인력도 적기 때문에 무리한 구상이다.

(농촌)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농촌관광 + 사회적경제 + 도시재생 + 일자리 + 주민자치(동네자치) + 6차산업 + 푸드플랜

42

[모델] 통합형, 민간위탁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 운영(조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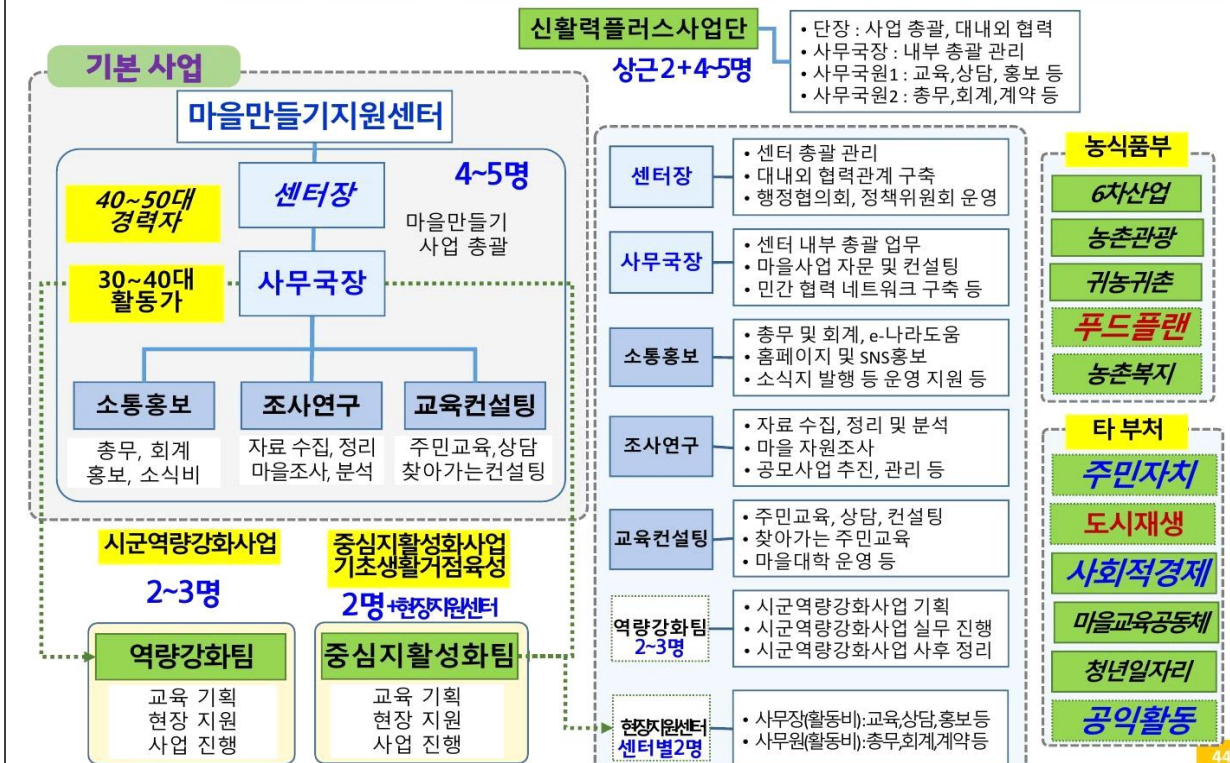
민간위탁 중간지원조직 = 조례(위탁 근거) + 민간 법인 존재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 통합형 기본조례 + 민간 네트워크형 법인



43

[참고] 지자체 농촌정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과 인력 규모 추정

→ 일회성의 보조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의 위탁사무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44

[비교] 중간지원조직 설치형태(운영 법인) : 유형별 장단점 비교

	재단법인형 (100% 행정출연형, 민관 공동출연형)	민간위탁형 (비영리 사단법인·사회적 협동조합)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 유리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조직 안정 •전문직 상근자 채용 유리 •다양한 정책사업의 안정적 출연 운영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 자율성 확보와 역량 강화 용이 •예산 집행의 유연성 확보 용이 •상근 직원의 유연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 •수탁법인이 관련 영역에서 수익사업 및 보조사업으로 사업확대 용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의 역량이 운영성과 좌우 •관계 행정부서와의 이해 상충 우려 •조직 관료화 우려 •정치적 오해와 ‘낙하산’ 인사 우려 •다양한 사업 위탁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단계 수탁법인 이사회의 전문성 부족에 따라 행정 및 상근자와 갈등 상존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에서 수탁법인의 지속성·안정성 확보 곤란(위탁기간, 위탁수수료 등) •민-민 갈등 시에 행정의 중재 곤란 •상근자 고용의 불안정성 상존
★ 단점 보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출연 유도를 통해 민간 통제 강화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수의 적절한 조화 모색 (장래 수익 영역은 비정규직 운영, 독립 유도)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전환 유도로 행정의 비대화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실정에서 정책적 인큐베이팅 관점으로 수탁 법인의 성장과정 지원 •민간위탁 제도 개선, 보완 : 위탁수수료 인정, 위탁기간 5년 보장, 인건비 중심 편성 등 •채용가능한 상근인력의 지역내 사전 집중양성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주군커뮤니티비즈니스재단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충남도 청양군, 부여군에서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전주도시혁신센터 •도시지역 대다수 마을자치 중간지원조직

자료 : 지역재단(2019.5.1.), 슬라이드 35쪽을 바탕으로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

45

5. 오늘의 종합토론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 과정”

46

[기본적 역할] 행정-수탁법인-지원센터-위원회 등

→ **공동학습과 토론을 통해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

구분	성격	기본적인 역할(원론)	[시군 특성 반영] 행정 업무분장(조직체계) 상근 센터장 유무와 역량 수탁법인 전문적 역량 센터 운영경험 축적도 센터 인력과 업무량 등
행정	[정책 수립, 예산 확보, 관리·감독] (정책 전문성과 업무협조체계 확보)	·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탁법인	[수탁사무의 법적 책임 확보] (전문성, 지속성, 현장성 확보)	· 센터 사무편람 작성 및 관리 · 센터 인사, 조직 관리(전결 포함) · 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 법인 고유사업 영역 확대(단계적) · 관련 보조사업, 수익사업 확보 · 민간의 유사 영역간 협력 활동	이사회,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
지원센터	[조례에 근거한 위탁 사무 수행] (전문성, 지속성, 현장성 확보)	· 조례와 협약,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기본사업 수행 · 인건비 기반의 비예산 사업 중시 · 주민의 자치역량 향상(조직화) 지원	보조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운영위원회	(협약서, 사무편람 등에 명시된 역할)	[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 확보] ·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혹은 심의) · 정기 개최를 통해 센터 활동 숙지	조례, 협약서 근거
정책위원회 (협의회)	(조례에 명시된 역할)	[농촌마을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 · 지자체 기본/실행계획, 예산 자문(심의) · 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 예산 등 자문	조례 근거

47

[쟁점1] 행정의 정책 전문역량 강화

"행정지원체계가 정비되어야 법인도 센터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 ① 총괄조정부서는 주민자치 업무를 포함하여 '과' 규모가 적절하다.
- ② 행정지원협의회 운영은 반드시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정기 운영해야 한다.
- ③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보직기간 준수, 전문직위제 도입, 민간전문가 채용 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쟁점3] 중간지원조직의 현장 전문성 강화

"제도적 상황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 ①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더 높이고 정규직 전환, 대체 근무, 육아휴직 등 더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행정의 의무사항이고, 수탁법인도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 ② 센터의 설치, 운영 기간이 짧고 구체적인 성과도 부족한 상황에서 근무환경 개선 요구는 과도하다. 센터 상근자도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먼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지역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 ③ 상근자의 전문성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나 교재, 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너무 부족하다. 스스로 학습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전문 연수원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구분	예시
행정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이 되면 행정의 역할과 인력은 줄어드 된다. · 조례의 정책위원회(협의회)와 행정지원협의회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 · 지원센터 업무는 행정사무이기에 보조사업이 아닌 위탁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 지원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행정은 직접 업무 지시를 자제해야 한다.
수탁법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법인의 이사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수탁법인은 반드시 다양한 정책 영역의 민간 네트워크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 · 수탁법인 이사장은 반드시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담당해야 한다. · 사무편람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좋다.
지원센터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적어도 반상근) 센터장이 근무하도록 행정과 법인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중간지원조직은 통합형 설치가 바람직하고,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를 1순위로 생각해야 한다. · 가능하면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이 재단법인 설립보다 바람직하다.

48

[쟁점2]

→ 2020.07.10(금) "중간지원조직 수탁법인 운영 활성화 워크숍", 충남개발공사대회의실

"민간 수탁법인 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 ① 법인의 **별도 상근자** 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상임이사**는 상징성보다 시간적/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외부 전문가**가 이사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② 행정은 **인큐베이팅** 관점에서 수탁법인의 성장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위탁수수료(일반관리비)**를 인정하고, 또 **별도 보조사업/소액연구용역** 등으로 법인 경영 측면을 배려해야 한다.
- ③ 지원센터도 **'월급 받는' 상근자** 입장에서 수탁법인 업무를 의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수탁법인의 자치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관련 사업을 당연히 배치해야 한다.

구분	쟁점(해결과제와 제안·권유 사항)
수탁법인 입장 혹은 지원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수수료가 반드시 있어야 함. 협약서에 법인에 대한 고려사항이 들어있지 않음. 행정에서 도와주면 법인의 운영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음.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법인에 주면 도움이 됨. 위탁수수료가 규정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터놓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함 · 시민사회 활성화가 시급함. 법인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회원모집에 노력중이고, 한달에 한번 지속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운영하려고 노력중임 · 행정은 사단법인 위탁에서 재단법인으로 큰 고민과 협의 없이 전환하는 것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 토론과 논의의 장이 필요함. 법인 산하에 부설연구소를 만들어 연구용역도 했지만 지속적인 유지는 쉽지 않음. 민간의 다양한 주체를 모으고, 행정은 민간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을 지원해야 함
지원센터 입장 혹은 지원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균은 협의를 통해 행정에서 위탁수수료 5% 내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바뀐 팀장은 불편해함 · 수수료를 줘야 한다는 규정도 주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음. 행정의 재량사항임. 지방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해석해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행안부가 연구용역중이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음 · 법인의 회원 모집 및 관리로 자생력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민간이 토론을 통해 법인을 만들었으나 행정에서 재단법인을 일방적으로 추진함. 행정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 · 인큐베이팅 관점에서 민간의 자생력을 의도적으로 육성해야 함

49

[공동학습 기본자료]

→ 법인 이사+행정 공무원+센터 상근자+지방의원+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탁과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선결"

- ① 마을만들기 조례 :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행정의 지원체계, 정책위원회 등
- ② 민간위탁 조례 : 위탁기간, 위탁절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등
- ③ 수탁법인 정관 : 설립목적, 사업영역, 조직체계, 행재정절차 등
- ④ 민간위탁 협약서 : 협약기간, 위탁 사무, 사업액수, 인력(정원), 운영위원회 등
- ⑤ 사무편람 : 운영위원회 구성, 센터장/사무국장 전결 규정, 근태관리 등
- ⑥ 협약을 통해 승인된 사업 및 예산계획서 등

[쟁점]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시군 조례/지침과 보고서, 2017년 8월 대화마당, 2020년 7월 워크숍 자료 등****충남에 학습자료는 어디보다 많이 있다 "**

50

[주요 종합토론 과제]

- ① 네트워크 법인의 **설립경로에 따른 운영실태** 비교
- ② **민간위탁수수료** 제도개선 : 행안부 지침 효력, 지원 실태, 지원 기준 등
- ③ 수탁법인 운영비와 **수익사업** : 수익사업 영역, 확대 가능성, 애로사항
- ④ 수탁법인으로 **재단법인의 장단점** 검토 : 장점과 단점
- ⑤ 수탁법인의 **중장기 미래상** : 자체 사무처 운영, 산하 연구소/사업단 설치

→ 지자체 특성 고려 + 제도적 공통사항 + 스스로의 실천 노력 등이 결정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ChungNam Institute

제3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아산)

【2부】 사례발표

“수탁법인 설립 과정과 애로사항, 제안 등”

- 이창신 사무처장((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설립 사례



홍 성 지 역 협 력 네 트 워 크 사 무 처 장 이 창 신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설립 과정

설립과정(민간)

- 2014년 말 충남도 3농혁신 특화사업으로 홍성군 “지역협력센터 구축”사업 제안 및 선정
- 2015년 2월 **“홍성통”** 주요과제로 지역협력센터 구축사업 논의
- 2015년 3월 홍성통회의의 지역협력센터 주체에 대한 논의
- 2015년 5월 민간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단체**로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성
- 2015년 6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결성 및 사무실 운영(사무국장 이창신)

애로사항
지역협력네트워크 설립시 민간주도의 상향식 조직구성을 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음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설립 과정

설립과정(민간)

- 2015년 12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정식 법인화 논의(중간지원조직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 2016년 1월 임원회의(행정추진내용, 법인화 방안)
- 2016년 3월 임원회의(법인화 방안, 직접/간접, 사회적협동조합/사단법인, 대표자, 임원, 기초재산 만들기, 명칭, 목표설정)
- 2016년 3월 임원회의(조직체계, 회원구성 및 운영,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무실확보, 정관확정)
- 2016년 4월 충남도 법인설립 허가(4/18)
- 2016년 5월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출범식**
- 2016년 11월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완료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설립 과정

설립과정(민간)

- 2016년 12월 청운대학교 사무공간 확보 및 인력 채용(상근 4명)
- 2017년 3월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개소식
- 2018년 11월 홍성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기 재 위탁,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 2020년 11월 홍성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3기 재 위탁, 도시재생지원센터 2기 재위탁
- 2020년 12월 **법인 운영체계 변경**(사무국 공식화, 두 센터 운영)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설립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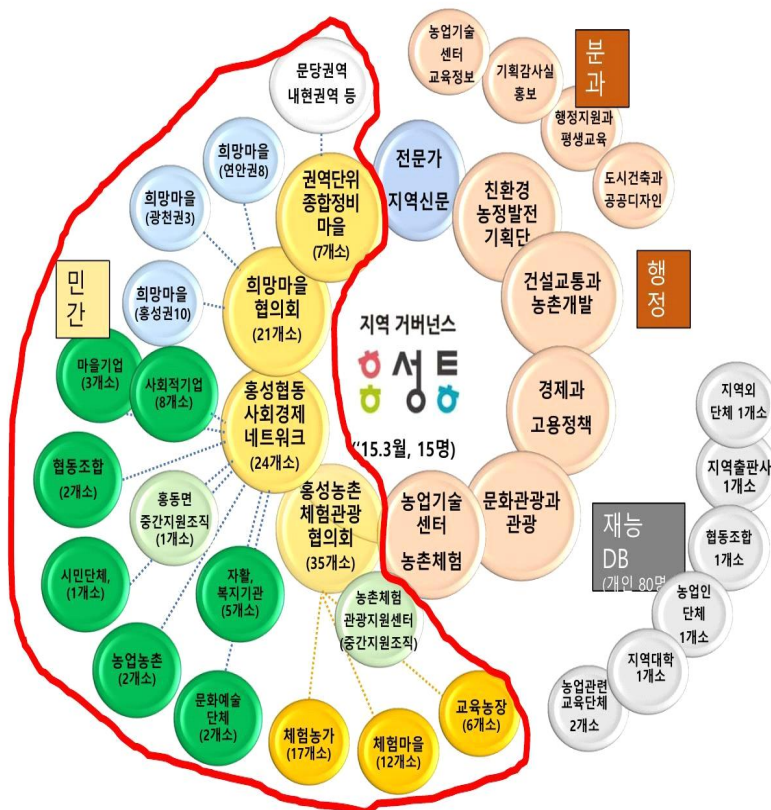
설립과정(행정)

- 2015년 6월 1차 추경 편성 못함(의회 반대)
- 2015년 9월 2차 추경 편성 못함(의회 반대)
- 2015년 10월 3차 추경 편성 못함(의회 반대)
- 2015년 12월 조정추경(?) 편성(의회 승인)
- 2016년 6월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발의 안됨
- 2016년 9월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의회 통과
- 2016년 10월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수탁 공고
- 2016년 11월 지원센터 위탁(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일관된 의회의 문제제기

- ① 행정이 직접하면 되지 왜 민간에게 돈을 주지못해 야단인가?
- ② 쓸 때 없는 사람들 돈 주려는 것 아닌가?
- ③ 한번 주면 계속 줘야한다. 홍성군 재정자립도가 얼마 줄 아느냐?
- ④ 어떤 전문가가 그거 받고 일하겠냐?

지역협력네트워크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공공성 확보



민간단체를 아우르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지역협력네트워크 설립
지역개발을 위한 거버넌스인 홍성통의 실천조직임을 명시

애로사항
이 단체 외에도 다른 단체들에 대한 고려 미흡(농업인 단체 등)
각 협의회 회원단체에 대한 공유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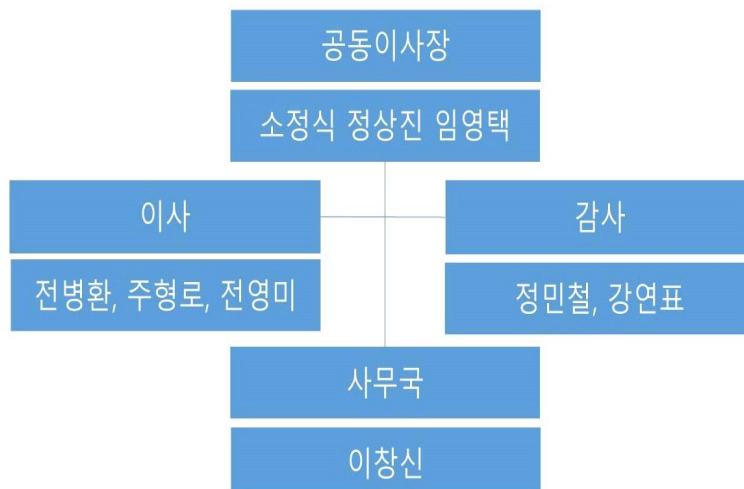
자료 : 홍성통 발표자료

지역협력네트워크와 홍성통의 관계 설정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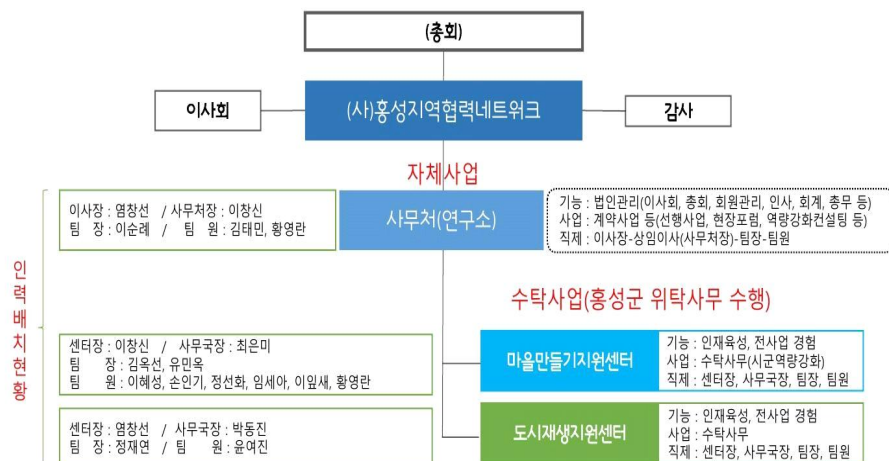
- 고민 : 민간단체를 아우르고, 조직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자와 임원은 누구인가?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2021년 조직개편 내용

한글문서 참조(별첨)



수탁법인의 애로사항 및 제안

1. 잘하는 것 같지만 늘 문제는 많다. 어디까지가 없다.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있을 뿐.
 - 이해관계자 많고,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 항상 죄송하고 미안할 뿐
 - 칭찬과 격려, 질책과 함께하기 = 결국 관심과 참여가 중요
 2.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말은 마을이고 주민인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3. 사업에 치이다 보면 목적을 잊는 경우가 있다.
-
1. 수탁법인은 참여주체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성장시킬 수 있다.
 -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항상 고민해야 함
 2. 법인의 시작과 끝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형식) + 사람(내용)
 - 이제 내용을 채울 때라 생각한다.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조직개편 방향

2020년 11~12월 이사회 자료 재 편집

2020년 11월 법인이 마을센터 재위탁을 위한 논의에서 시작

□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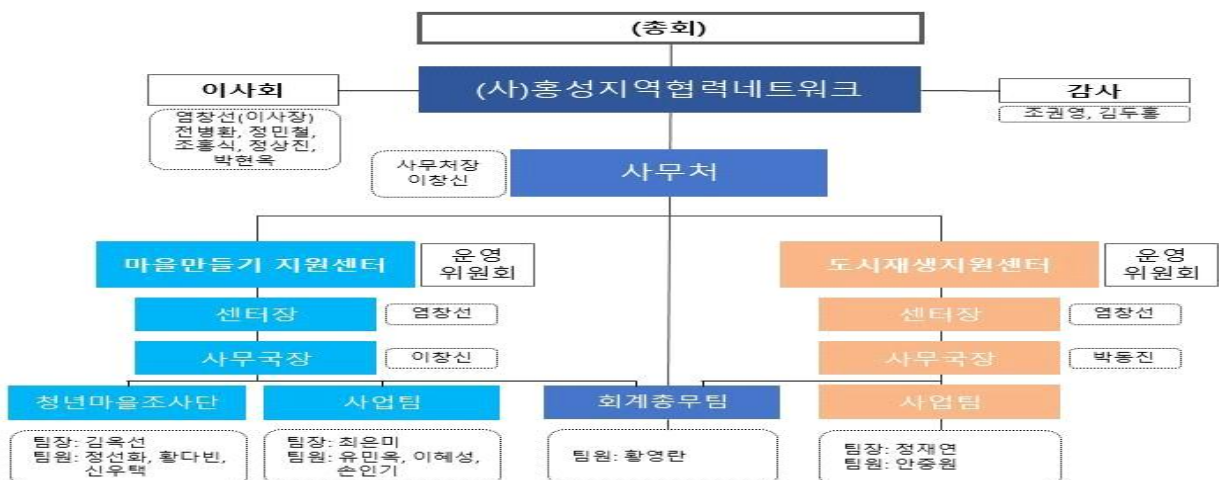
- 본 법인은 2016년 5월 설립 이래로 지속적인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 설립 목적에 맞는 질적 성장에는 어려움이 있음
- 현재 법인이 수탁 운영 중인 마을센터와 도시센터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하에 수탁 센터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법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부 조직개편 필요
- 법인의 양적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 법인운영 경위

- 본 법인은 2015년 임의단체로 시작하여 2016년 5월 법인으로 등록하여 운영
- 2016년 11월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수탁받아 지금까지 운영 중
- 2018년 11월 홍성군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수탁받아 지금까지 운영 중
- 지난 5년 동안 법인은 양적 확장되었으나 고유사업 및 활동은 여전히 부족하고, 직원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임원(회원)	-	5(20)	5(20)	5(20)	5(20)	6(20)	6(20)
직원	1	4	5	9	14	14	16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현 운영체계>



□ 조직개편안 검토

○ 이사회 의견

- 현재 법인의 양적성장은 두 센터 수탁에서 기인, 센터 수탁외 법인 독자 사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성장이 바람직
- 독자 사업은 법인이 지역 민간단체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지역의 다양한 민간조직들과 네트워크 속에서 타 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
- 또한 법인 회원에 대한 욕구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 있음

○ 정민철이사 의견(전체의견 별첨-1)

-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개편해야 할 것
- 큰 틀은 법인을 키울 것인가 / 센터를 키울 것인가
- 현재는 센터가 확장되어 법인은 통로의 역할만 하고 있음
- 결론으로 어느 방향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론적인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가야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

○ 구자인박사 의견(전체의견 별첨-1)

-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충남의 법인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탁사업을 위해 법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법인과 센터의 갈등)
- 다만, 홍성의 경우 법인은 보이지 않고 마을센터와 도시센터가 전면에 나서고 있으며 실제 법인사업인 보조사업, 계약사업도 마을센터 직원이 추진하면서 구분되고 있지 못함
- 장기적으로 볼 때 법인 고유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법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내부 인력 역량강화 및 사업의 결과가 법인에 축적될 수 있음

□ 조직개편 방향

○ 법인조직활성화(사무처 기능 강화)

- 법인 사무처 활성화의 이유는 첫째, 법인이 있어야 센터가 존재, 둘째, 센터는 행정 의존성이 높아 정치적 방향 등 외부상황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수 있음, 셋째, 법인 직원들의 순환 업무를 통해 내부 역량강화 가능
- 사무처 강화의 방향성으로는 센터의 기능을 이미 구조화된 업무를 매뉴얼화 하여 신규 근무자들이 할 수 있도록 축소(위탁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법인 사무처에서 계약사업 위주의 고도화된 사업을 추진(계약사업 위주, 보조사업은 계약사업으로 변경 요구)

- 센터와 사무처는 위계가 있지 않고 모두 법인 이사회(이사장, 상임이사 등) 권한 하에 있음
- 두 센터와 사무처는 사업 추진에서 완결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통재권(인사, 결재 등)은 이사회에 있음

○ 현실을 반영한 법인조직활성화(사무처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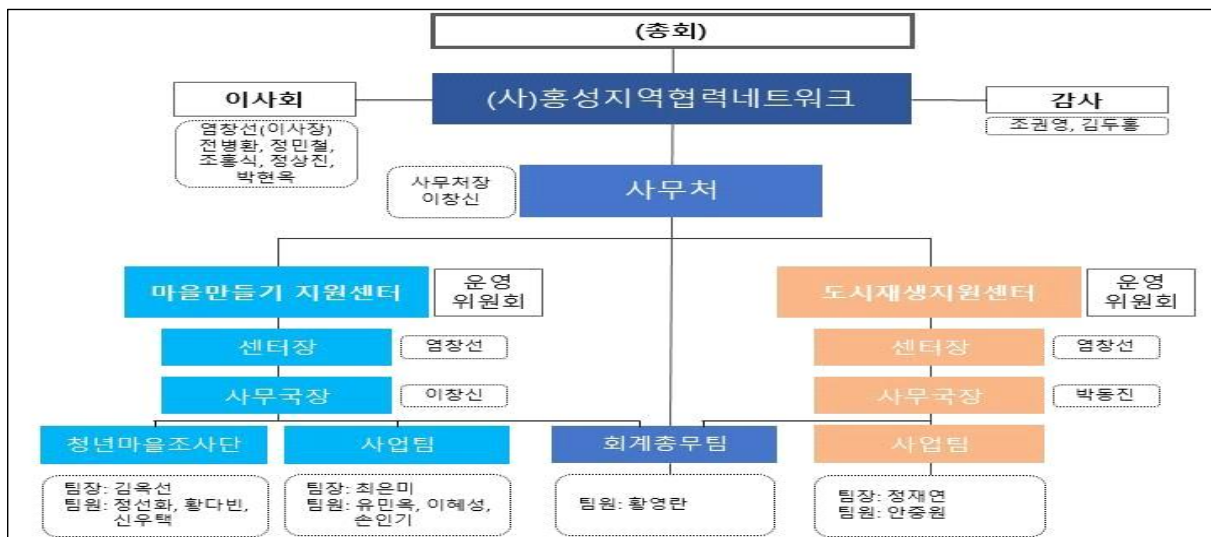
- 현실적으로 당장 조직개편에 따른 모든 것들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뀌어야 할 것
- 우선 마을센터 운영에서 상근 센터장 체계로 변경하고, 상근 센터장은 사무처(연구소)장을 겸임하며 장기적인 법인조직활성화에 대응
- 장기적으로 법인 실무자 뿐만아니라 참여주체들이 모인 법인워크숍 추진(2021년)

□ 조직개편(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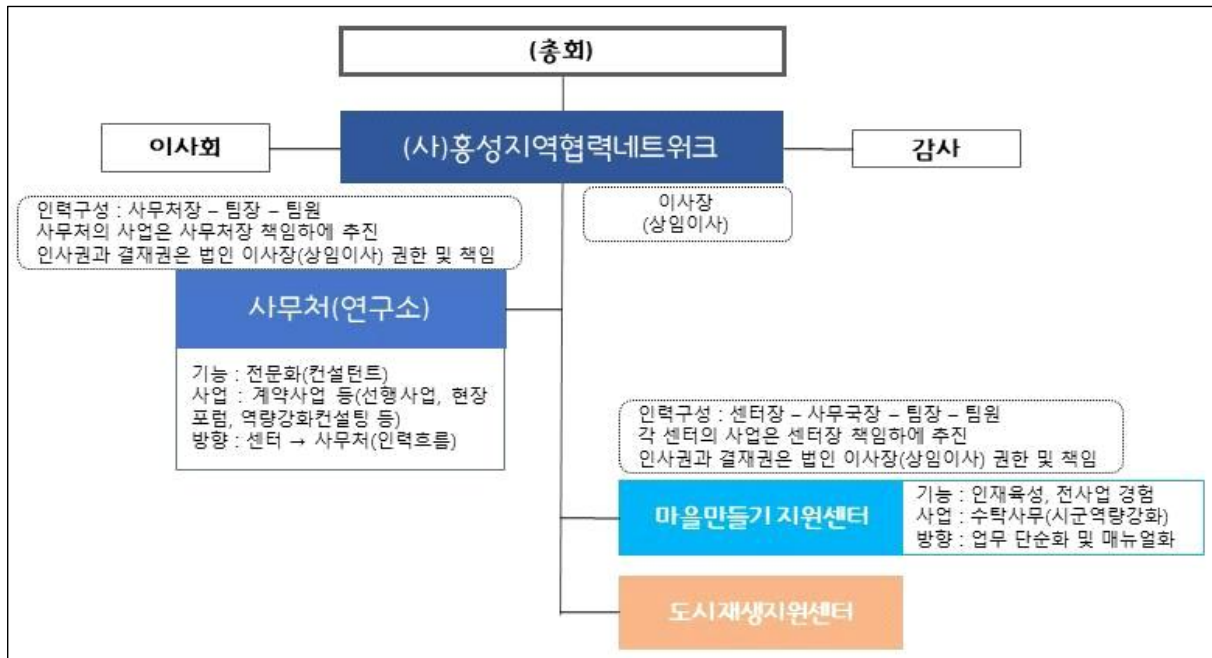
○ 2021년 법인 조직개편(안)

- 법인 조직개편(2안)은 법인에 사무처(이사장-상임이사-직원+회계)가 기준을 잡고 연구소(법인 자체사업), 두 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사무처들 담당할 상임이사나 직원 등이 없어 당분간은 1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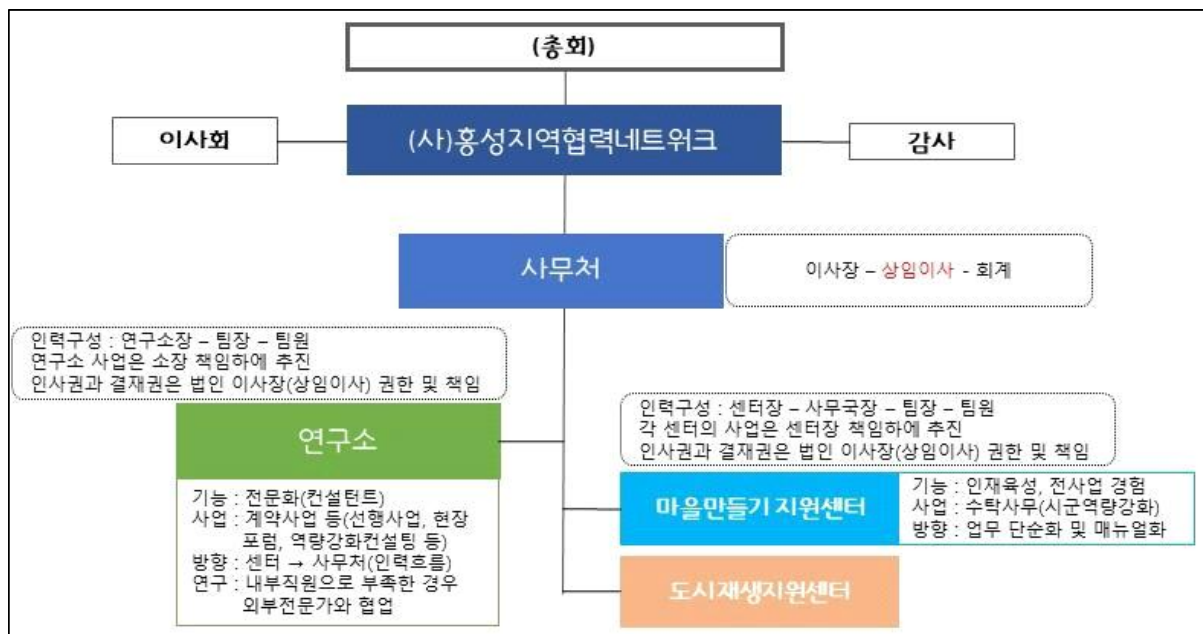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현 운영체계>



<법인 조직개편(1안)>



<법인 조직개편(2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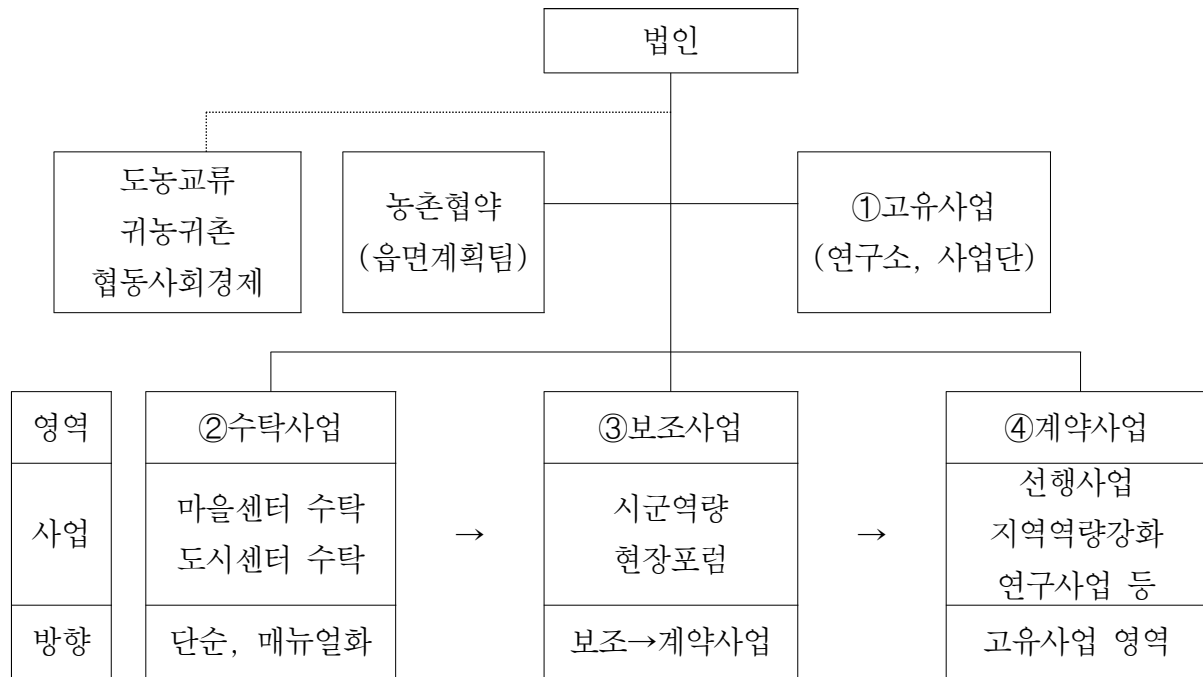
법인 조직개편에 대한 자문 의견

○ 정민철이사 의견

-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개편해야 할 것
- 큰 틀은 법인을 키울 것인가 / 센터를 키울 것인가
- 현재는 센터가 확장되어 법인은 통로의 역할만 하고 있음
- 센터 중심의 상황에서 문제는 정부정책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센터의 존폐가 결정될 요지가 크고, 이렇게 될 경우 법인도 같이 사라질 공산이 높음
- 현재 문재인정부는 2022년 5월로 종료, 지방선거도 2022년 6월로 2022년 이후 마을만들기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충남도는 마을만들기에 큰 관심이 없으며, 홍성군수도 바뀌는 상황
- 법인을 키우는 것은 센터의 역할을 슬림화, 단순화, 매뉴얼화 등으로 규정 지어주고, 고민이 필요한 일 등은 법인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
- 이런 설정이면, 센터가 행정적(정치, 등)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다 하더라도 법인 활동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결론으로 어느 방향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론적인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가야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됨(언제까지 염창선이사장, 이창신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조직개편 속에서 이사장, 센터장, 사무국장 등의 관계나 역할이 설정되어야 할 것)

○ 구자인박사 의견

- 법인의 4대 업무영역으로 나누어 설명
- 충청남도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시군마다 설치하는 계획에서 행정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기본으로 했으며,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받을 법인이 있어야 하기에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주체들을 육성하고 함께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성이 중요했으며, 법인화 후에는 법인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법인 사무국(연구소)이 독자적인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충남의 법인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탁사업을 위해 법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법인과 센터의 갈등)
- 홍성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는 법인에 대한 고민이 있는 편으로 형식상 1~4영역의 사업을 모두 수행한다고 판단됨
- 다만, 홍성의 경우 법인은 보이지 않고 마을센터와 도시센터가 전면에 나서고 있으며 실제 법인사업인 보조사업, 계약사업도 마을센터 직원이 추진하면서 구분되고 있지 못함
- 행정에서도 수탁사업과 보조사업, 계약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관행대로 처리하는 경향
- 현재 인력을 고려하지 않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법인 고유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법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내부 인력 역량강화 및 사업의 결과가 법인에 축적될 수 있음
- 제안 ① 센터위탁금(인건비)+시군역량강화 보조금(사업비) → 센터위탁금(인건비+사업비), 위탁금을 지원했는데 사업은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에 하나의 위탁금으로 묶어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해 주는 것이 맞음 / 현실적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에서 인건비를 인정했기 때문에 기존의 활동비 등도 미리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홍성에서 활용했던 인건비 = 위탁금 80% + 시군역량 20%도 해결될 수 있음.
- ② 현재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시군역량강화, 현장포럼 등은 내용적으로 보조사업이 아니라 계약사업 등에 해당하나 행정의 기존 관례와 편리

등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이나 계약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음

- ③ 계약사업을 법인 사무처(연구소, 사업단 등)에서 추진하여 법인 역량강화가 필요 /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 당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나아가야 할 것임
- ④ 인력배치의 문제에서도 신규직원의 경우 수탁사업(이미 구조화된 일)기반 사업을 하다가 역량강화를 통해서 계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ChungNam Institute

제3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아산)

【2부】 사례발표

“수탁법인 설립 과정과 애로사항, 제안 등”

- 박두호 이사장((사)천안시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Contents

01 **법인 소개**

02 **법인 역할**

03 **법인 비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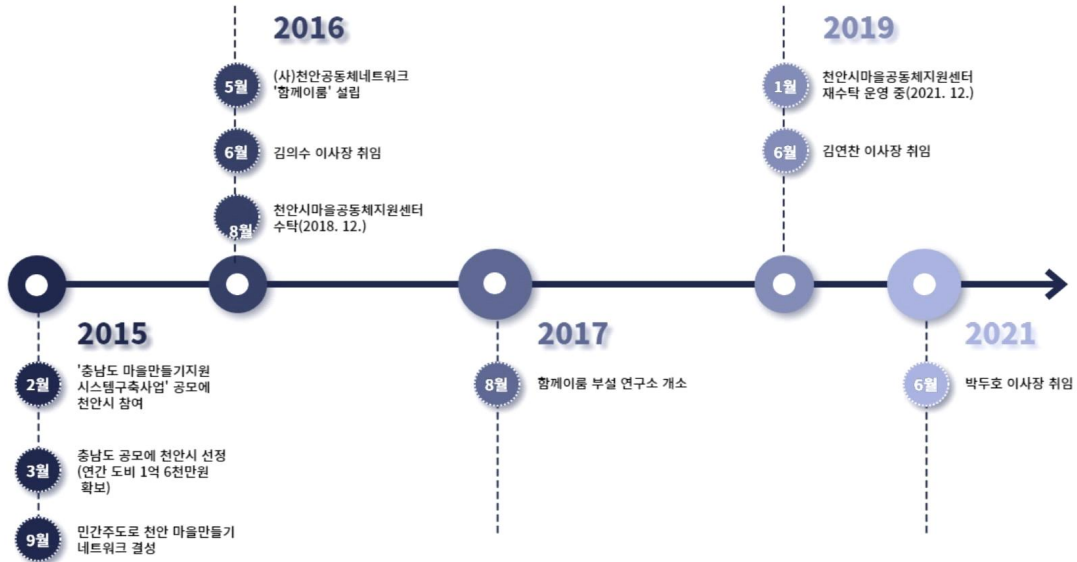
법인소개

함께이룸 기본개요

01 함께이룸 기본개요

설립목적 및 연혁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협동사회경제 시스템 구축,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마을과 민간단체들의 연대와 협력 활동을 촉진 및 지원하고자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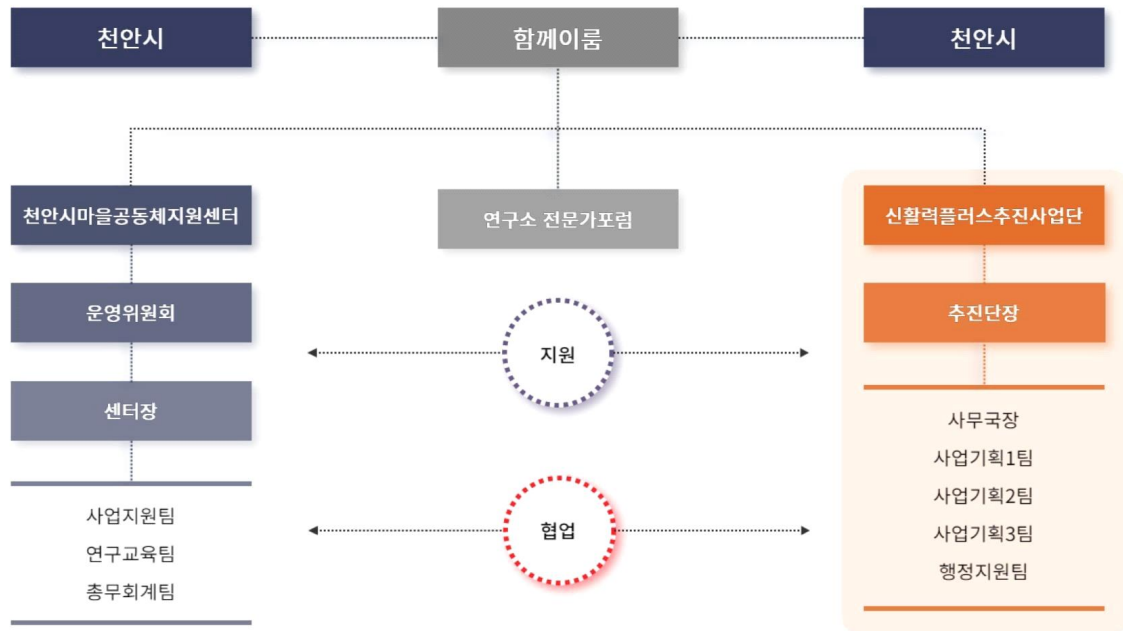
01 함께이룸 기본개요

주요기능



01 함께이름 기본개요

조직도



01 함께이름 기본개요

인력현황

구 분	이 름	소속 및 직책	담당업무
함께이름 이사회	박두호	함께이름 이사장	법인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김태연	함께이름 이사 함께이름 이사	법인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김태영		법인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이성근		법인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고경호		법인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안병순		법인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전문숙		법인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최양순		법인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최재권	함께이름 감사	법인 운영사업 감사
	박익순	함께이름 감사	법인 회계 감사

구 분	이 름	소속 및 직책	담당업무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주 덕	천안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 센터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안재인	연구교육팀장	- 연구조사 및 역량강화교육 부문 운영 총괄 - 인력 양성교육 및 활동 지원 운영 총괄
	신재희	연구교육팀원	- 연구조사 및 역량강화교육 부문 사업 운영 - 인력 양성교육 및 활동 지원 운영
	송예영	사업지원팀장	-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운영 총괄 - 지역협업사업 및 센터 홍보사업 운영 총괄
	이재룡	사업지원팀원	-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운영 - 지역협업사업 및 센터 홍보사업 운영
	정애진	총무회계팀원	- 센터 회계 및 행정 업무

02

법인 역할

02

법인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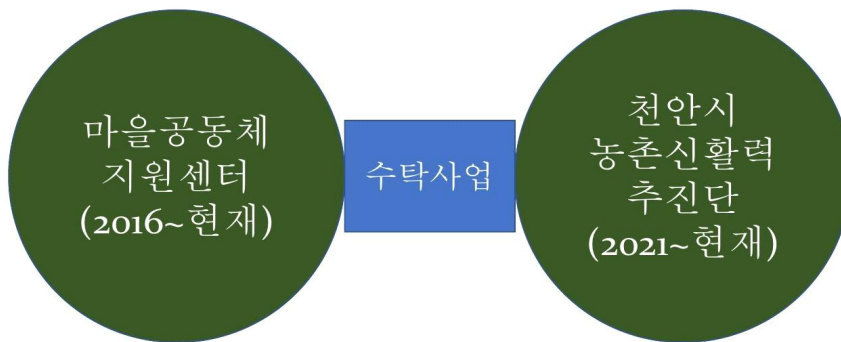
1.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등의 조사, 분석, 연구 사업
2. 지역 리더와 주민의 교육, 컨설팅, 국내외 연수 사업
3. 마을, 사회경제조직,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4.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5.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등 관련 각종 정책 제안 사업
6. 중간지원조직 등 관련 각종 행정 사업의 위탁 운영 사업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보조 및 공동협력 연구사업
8. 위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보고서 및 도서 간행과 홍보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비영리 및 수익 사업

02

법인 역할

정관상 설립목적에 비추어본다면...

현재의 센터 및 신활력사업의 수탁사업은 사업영역의 일부분



02

법인 역할

정관상 설립목적에 비추어본다면...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



농촌마을의 특성과 마을사업의 특징을 고려하면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연계 사업 추진되어야 함

02

법인 역할

정관상 설립목적에 비추어본다면...

정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연구사업과 수익사업 가능



수탁법인으로서 천안시 관련부서의 다양한 용역사업추진(전문가양성)

양성된 자체 인력 운영을 통해 정부R&D와 수익사업추진(전문기관)

➡ 수익 목적이 아니라 민간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활동

02

함께이룸 역할

그러나 현실은

법인 자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확보도 어려움



03 법인 비전

03

법인 비전

1

농촌
주민자치

2

농촌
마을만들기

3

천안시
푸드플랜

4

신활력
플러스
로컬푸드
사업

5

지역
공동체경제
육성

6

천안시
농촌협약

법인 비전

수익사업 등 민간위탁 이외의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대 협력 기반으로 시민 네트워크..그리고 다양한
먹거리 관련 경제주체를 육성하고 공동체경제기반 구축?

어디에 방점을...

감사합니다.

(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ChungNam Institute

제3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아산)

【2부】 사례발표

“수탁법인 설립 과정과 애로사항, 제안 등”

- 권영진 이사장((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사단법인) 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보령시

보령시 수탁법인 이사회



수탁법인 현황

- 1.법인 등록번호:164521 -0001461
- 2.법인명칭: 사단법인 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 3.주사무소: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은고개길 165
2021.03.03. 변경)
- 4.회원:12명
- 5.임원 :12명 (이사장 1명, 이 사 11명) - 감사1명은 미등기
임기: 2년 (임원 3대째 연임)
- 6.설립허가년월일:2016년12월28일
- 7.법인성립연월일:2017년01월02일

법인의 설립목적

보령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주도하는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영역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함으로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법인 사업내용

1.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 경제 등의 조사, 분석, 연구사업
2.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조직, 민간단체의 네트워크구축 지원사업
3.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 경제 등 관련 각종 정책사업
4.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5. 지역리더와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국내의 연수사업
6. 공동체와 관련한 문화예술, 환경보전, 경관개선, 역사보전사업
7. 중간지원조직 등 관련 각종 행정사업의 위탁운영사업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보조 및 공동협력 연구사업
9. 위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보고서 및 도서관행과 홍보사업
10.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비영리 및 수익사업

자산총액과 출자방법

▶ 자산총액: 12,000,000원(회원개별납부)

▶ 출자방법

- 회 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각종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 타

설 립 경 로

■2016년 보령시 주관으로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운영과 보조금지원 목적으로 민간위탁기관 설립권유

■설립초기이전에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수탁을 받아 운영하기로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하였으나 민관 포럼 결과 사단법인이 효율적이라 하여 행정 주도하고 마을만들기협의회가 협조하여 신규설립 함

회원과 임원구성 경로

- 행정의 권유로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7명을 파견하고
- 마을만들기협의회 외에는 당사자협의체가 없어서 도시문화예술 등 개인 활동가를 중심으로 5명이 추가 합류하게 됨
- 전체 회원 12명을 집단 임원체제로 등기함.

회의 관련

- 총회: 년 1회
- 이사회: 정기, 수시회의
- 안건 및 결의: 과반수이상 참석개회
과반수이상 찬성 결의
- 회의 장소
마을지원센터 교육장/회의장->
향후 사무국 소재지(은고개마을)

운영 방식

- ☐ 사업계획 수립
마을지원센터가 수립하고 행정과 협의
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의함
- ☐ 사업비 집행
마을지원센터가 집행하고 상·하반기
이사회에 결산보고함
- ☐ 보조 수탁금 관리
마을지원센터가 관리함

보령시 수탁 계약내용

1. 지역역량강화사업

- 예산규모 : **400**백만원 (중간지원조직 육성 2명 인건비 **82**백만원)
- 사업종류 : **15**개사업

2.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수탁 운영

- 기관명 : 보령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 구성원 : 상근 **5**명(팀원 **3**명, 팀장 **1**명, 사무국장 **1**명),
비상근 **1**명(센터장). 중간지원조직 육성 **2**명 총 **7**명
- 설립근거 :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2015.12.30.** 조례 제**1256**호)
- 운영비 : **242**백만원(인건비 **198**백만원)

3. 시군창의 사업(2021.8.31. 사업종료)

- 체험관광유통 네트워크사업단 운영 **230**백만원 (인건비2명 **130**백만원)
- 문화예술공동체학교 운영 **50**백만원
- 구성원 : 상근 **3**명

4. 총 수탁규모금액 : **922**백만원

15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내용

- 1.새보령마을대학 : 9백만원
- 2.찾아가는 마을창안학교 : 20백만원
- 3.중간지원활동가교육 : 19백만원
- 4.완료지구맞춤형 프로그램지원 : 16백만원
- 5.마을네트워크사업 : 9백만원
- 6.지자체마을대회(만세보령대상) : 40백만원
- 7.마을가꾸기 지원사업 : 50백만원
- 8.마을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40백만원
- 9.마을활성화 현장포럼 : 10백만원
- 10.마을홍보 마케팅 : 41백만원
- 11.마을자원조사 : 33백만원
- 12.마을홍보물제작 : 18백만원
- 13.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 3백만원
- 14.찾아가는 문화지원 : 10백만원
- 15.중간지원조직 직원육성 : 82백만원



자체 수탁 사업

- ☐ 충남교육지원청, 보령시 행복교육지구수탁사업 (2019,2020)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20개마을, 사업비190백만원)
- ☐ 충청남도,보령시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청년자치학교
-청년수다 네트워크
- ☐ 충청남도,보령시 청년멘토육성지원사업 운영

충남교육지원청, 보령시 행복교육지구수탁사업

2019 보령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마을학교에 가자~!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모토입니다.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학교는 공동체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마을주인이 마을교사가 되고 보령시청과 보령교육지원청이 협력해 만들어가는 마을학교는 지속 가능한 보령, 신나는 우리 동네를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마을학교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 보령시 관내 학생과 청소년
 교육비 : 무료(간식,준비물 제공), 차량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각 마을학교별 연락처로 전화 후 학부모님 직접 방문 신청
 접수기간 : 9월 2일까지 프로그램별 선착순 마감
 수업시간 : 매회 90분씩
 운영기간 : 9월 ~ 11월 / 12월초 종합발표회
 ※ 수업횟수는 10차시 내외, 마을학교별로 다릅니다

주최 : 보령시,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주관 : (사)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협력기관 : 보령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보령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19 보령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현황

번호	프로그램명	연세	대상	장차	장소	운영단체	문의
1	나눔 마을학교	초·중·고	초·중·고	10	보령시내초등학교	보령시내초등학교	010-2020-9400
2	마을학교	초·중·고	초·중·고	10	보령시내초등학교	보령시내초등학교	010-2020-9400
3	마을학교	초·중·고	초·중·고	10	보령시내초등학교	보령시내초등학교	010-2020-9400
4	마을학교	초·중·고	초·중·고	10	보령시내초등학교	보령시내초등학교	010-2020-9400
5	마을학교	초·중·고	초·중·고	10	보령시내초등학교	보령시내초등학교	010-2020-9400
6	마을학교	초·중·고	초·중·고	10	보령시내초등학교	보령시내초등학교	010-2020-9400
7	마을학교	초·중·고	초·중·고	10	보령시내초등학교	보령시내초등학교	010-2020-9400
8	마을학교	초·중·고	초·중·고	10	보령시내초등학교	보령시내초등학교	010-2020-9400
9	마을학교	초·중·고	초·중·고	10	보령시내초등학교	보령시내초등학교	010-2020-9400
10	마을학교	초·중·고	초·중·고	10	보령시내초등학교	보령시내초등학교	010-2020-9400
11	마을학교	초·중·고	초·중·고	10	보령시내초등학교	보령시내초등학교	010-2020-9400

※ 위 프로그램은 보령시 지역의 학생, 청소년에게만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전화상으로 하세요.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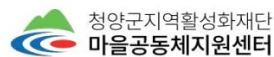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ChungNam Institute

제3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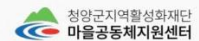
【2부】 사례발표

“수탁법인 설립 과정과 애로사항, 제안 등”

- 노승복 센터장((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1.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행정 직영, 기간제근로자

2016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공모사업에 선정
2017년 3월 사무실 현위치 확정(청양읍 칠갑산로 235, 구 자원봉사센터)
2017년 4월 센터 사무국장 1명 채용, 건설도시과 농촌개발팀 직영으로 센터 운영 시작
2017년 7월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청양군 조례 제2150호) 공포
2018년 1월 센터 직원 3명(팀장 2명, 팀원 1명) 채용
2018년 7월 청양군 마을만들기협의회 창립총회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 청양군 마을만들기협의회 창립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농촌마을 현실 - 민간역량 부족

청양군 마을만들기 협의회 창립(2018년)



청양군 마을만들기 협의회 (총 52개 마을)

일반분과

농촌현장포럼
이수마을

씨앗분과

삼삼오오
선행사업

새싹/꽃분과

마을만들기
자율,종합개발

열매분과

마을차량전
인증및지정

네트워크

중심지사업
기초생활거점



3

3.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신설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19년 1월)



행정조직

민선 7기 핵심정책 '공동체, 푸드플랜' 확장성 강화

중간지원조직

통합형 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준비

4

4. 청양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논의



청양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20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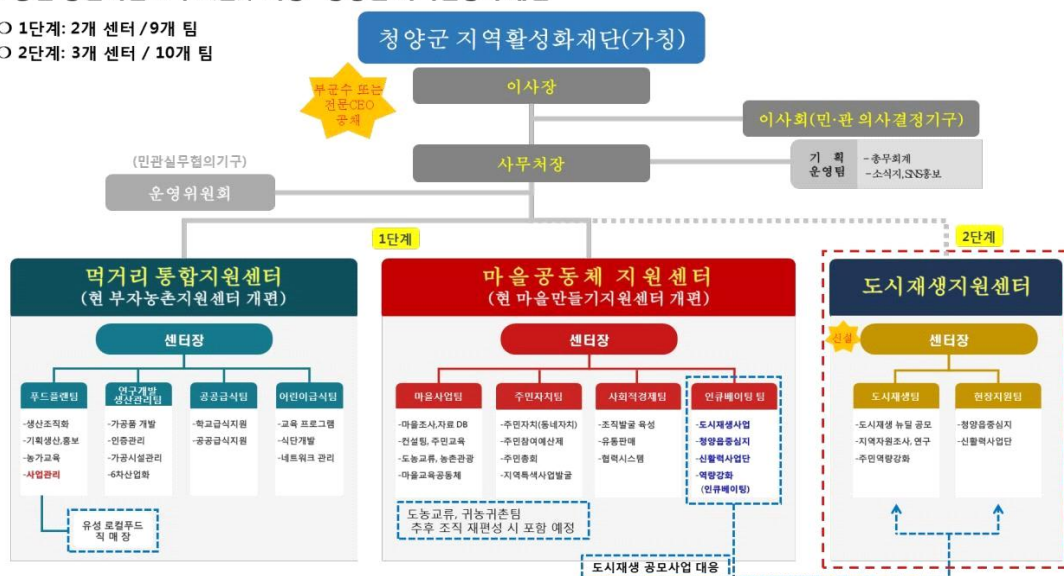
5

5.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가칭) 조직도(안)



□ 통합 중간지원조직도(안) / 가칭- 청양군 지역활성화 재단

- 1단계: 2개 센터 / 9개 팀
- 2단계: 3개 센터 / 10개 팀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가칭) 조직도(안)(2019)

6

6. 민간위탁과 재단법인의 장단점 비교

통합형 중간지원조직과 재단법인

	재단법인	민간위탁(사단법인)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조직 안정 · 상근자 고용 안정 · 사업 수행 및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 · 공공성 확보 및 수혜 대상 확대 가능 · 다양한 정책사업 융복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주체성, 자율성, 창의성 발휘 ·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 가능 ·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 지역주민과의 연계성 높음 · 공공부문의 행정조직 확대 방지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성과 독립성 부족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한계 · 재단과 행정의 이해 상충 우려 · 조직의 관료화 경향 · 임직원의 역량이 운영 성과 좌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의 불안정으로 전문성 부족 · 지자체 정책 방향과의 조정 어려움 · 운영관리 경험과 역량 부족 · 수익성 추구에 따른 공공성 훼손 · 행정 지원 지속적 요구 우려

표 1 재단법인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비교.

7

7.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창립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범식

■ 일시: 2020년 7월 6일 (월) 14:30~ ■ 장소: 청양군 문화체육센터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범식(2020.7.6.)

8

8.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타당성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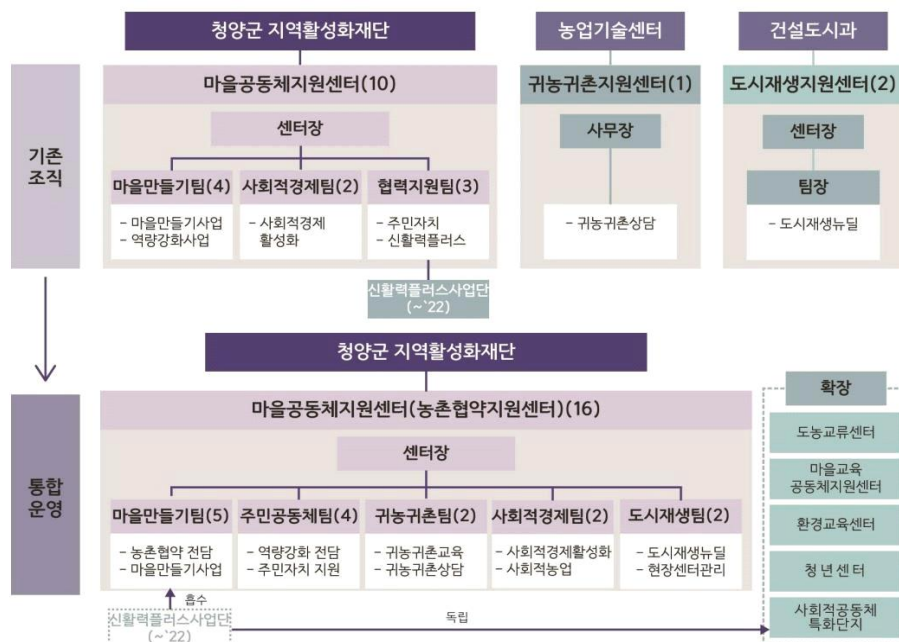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



청양군 재단법인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2019.10.13.)

9

9.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중장기 구상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의 현재 조직(2021.7.)과 2단계 발전 구상

10

10.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안

지자체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식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직원 워크숍(2020.8.5.)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ChungNam Institute

제3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아산)

【2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마을 네트워크 법인 관계자 설문조사”

- 이윤정 책임연구원(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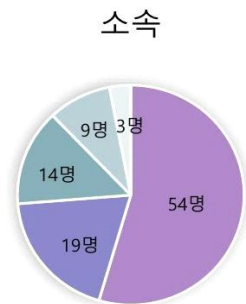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2021.07.30.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이윤정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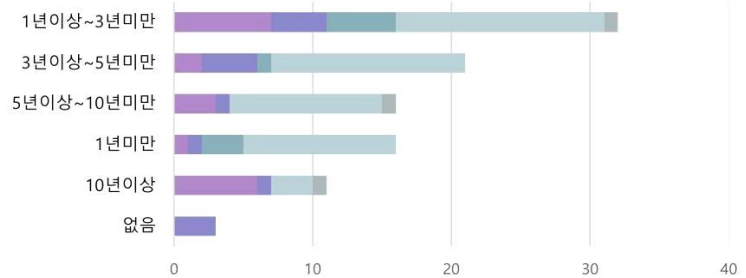
- ❶ 조사목적 : 마을만들기의 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법인의 구성
방법과 효율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파악
- ❷ 조사기간 : 6월 1일 ~ 6월 10일
- ❸ 조사방법 : 구글 온라인 설문지

응답자(총 99명)



-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및 활동가
- 마을위원장(전직 및 현직)
- 마을주민
- 행정공무원
- 컨설팅사 및 연구자

활동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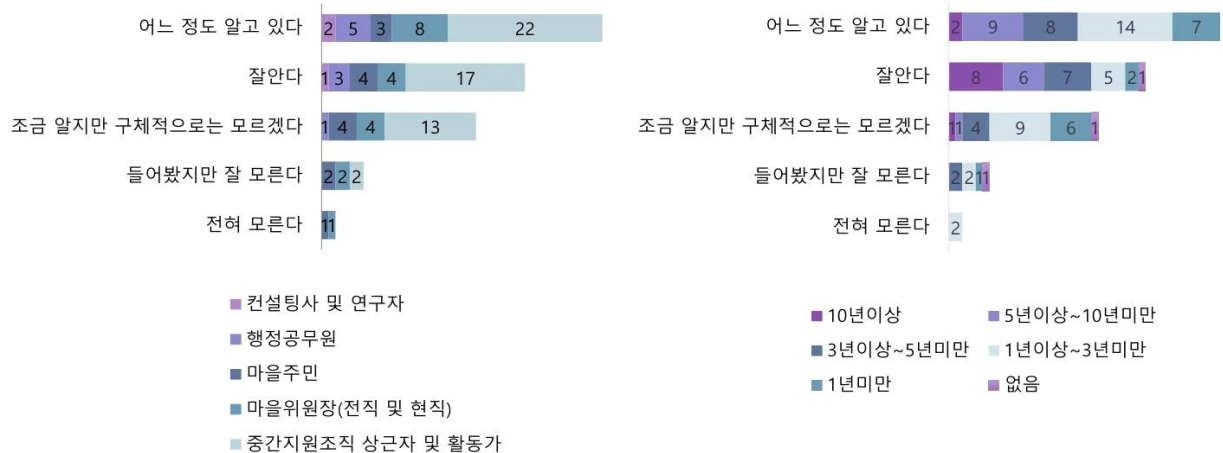
- 마을위원장(전직 및 현직)
- 마을주민
-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및 활동가
- 행정공무원
- 컨설팅사 및 연구자

2021/07/30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3

민간 네트워크 법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 컨설팅사 및 연구자
- 행정공무원
- 마을주민
- 마을위원장(전직 및 현직)
-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및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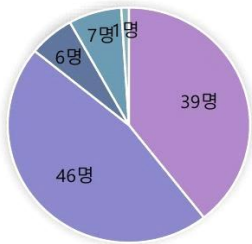
- 10년이상
- 5년이상~10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1년미만
- 없음

2021/07/30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4

민간 네트워크 법인이 어느 정도, 왜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 반드시 필요하다
- 어느 정도 필요하다
- 잘 모르겠다
- 필요없는 것 같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이유

다양한 단체 간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52명
지역의 대표성이 있고 규모도 있기에 행정과의 대등한 협력관계가 가능하다	48명
중간지원조직 수탁도 가능하고, 특히 통합형 센터를 유도할 수 있다	27명
법인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다양한 협력사업도 가능하다	21명
기타	1명

불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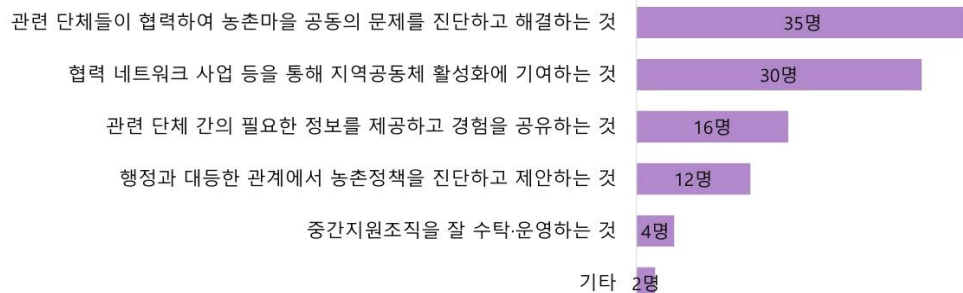
명확한 역할과 특별한 권한이 없어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8명
옥상옥 조직으로 회의만 많아지고 자리다툼이 생기기 쉽다	4명
여러 단체가 모이기에 의사결정도 어렵고 갈등만 초래하기 쉽다	3명
일 많은 마을위원장, 단체 대표들을 더 바쁘게 할 뿐이다	1명

2021/07/30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5

민간 네트워크 법인에 어떤 역할을 가장 기대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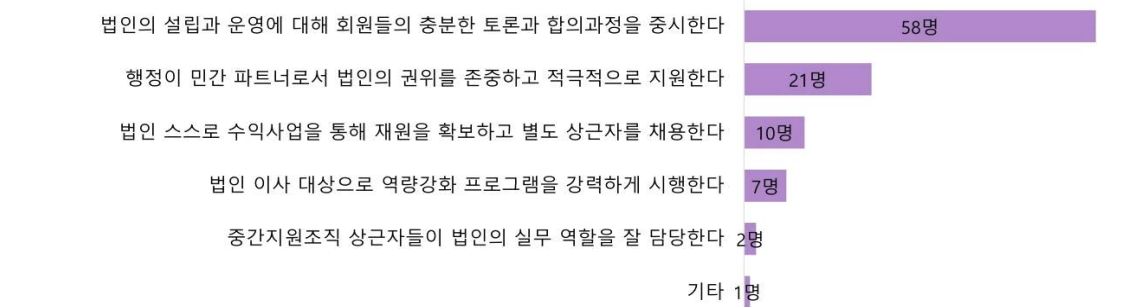


2021/07/30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6

민간 네트워크 법인 운영이 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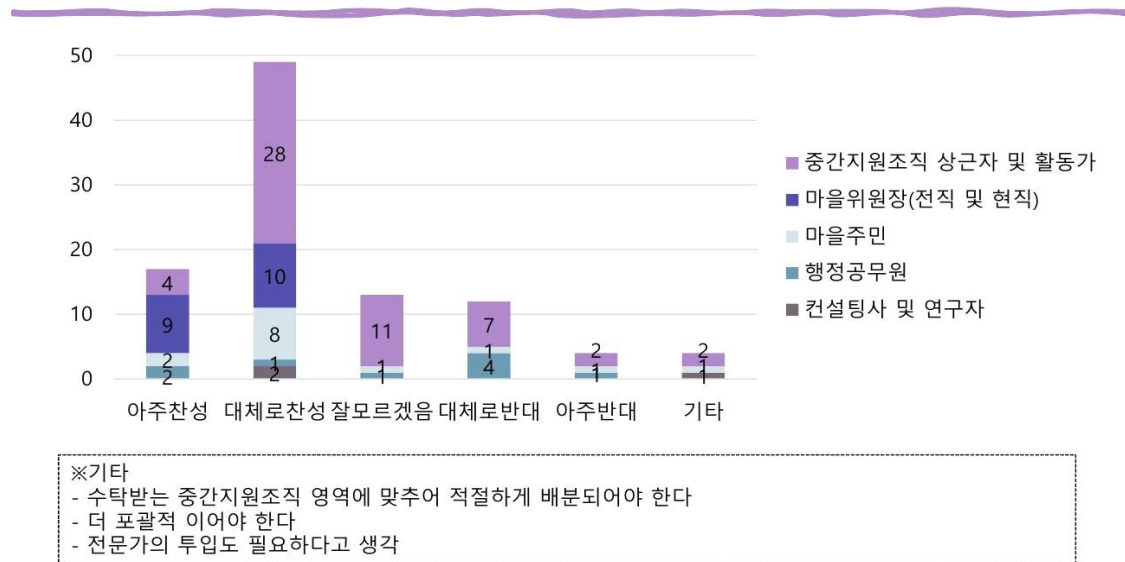
2021/07/30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7

마을만들기협의회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쟁점1. 법인 이사회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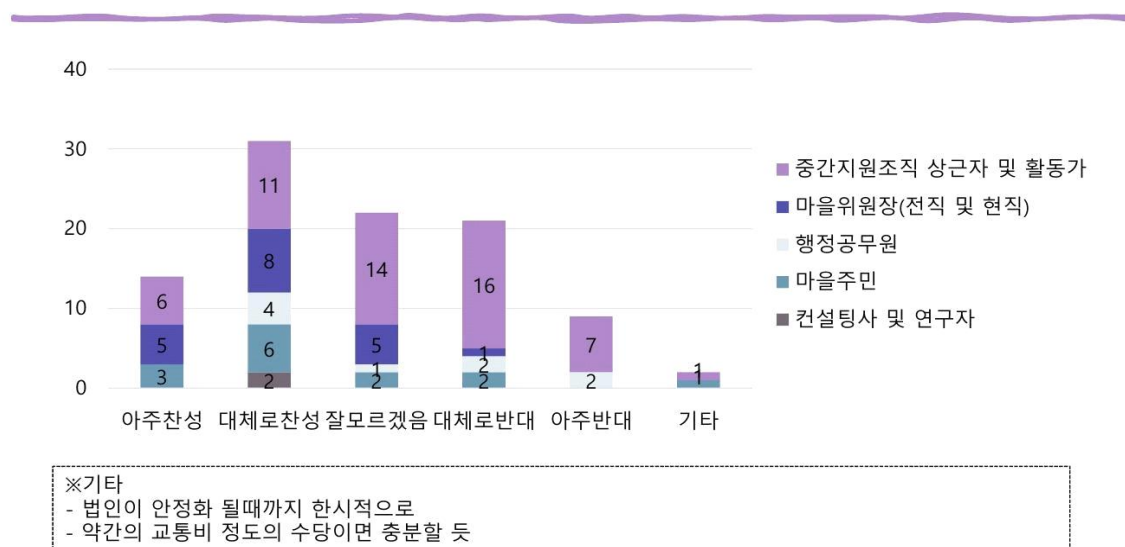


2021/07/30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9

쟁점2. 법인 이사회 참석자에게 센터 사업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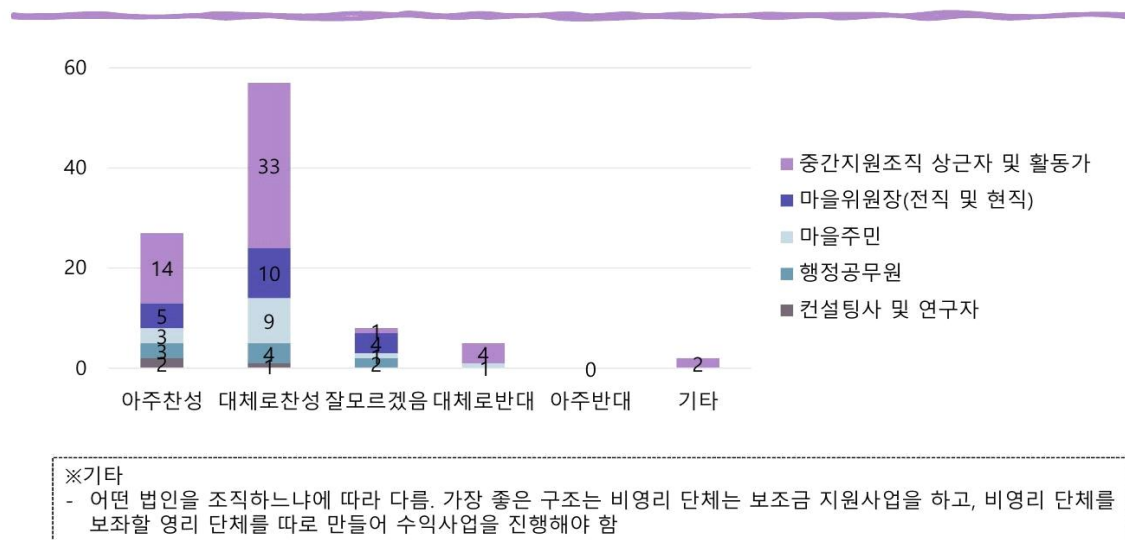


2021/07/30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0

쟁점3. 법인 산하에 수익사업 조직을 설치하여 독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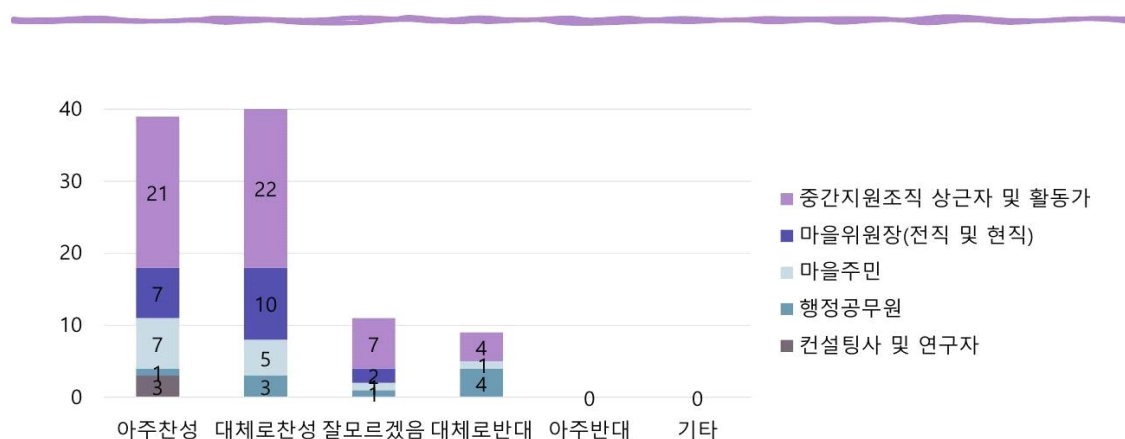


2021/07/30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1

쟁점4. 행정은 중간지원조직 위탁 시에 위탁 수수료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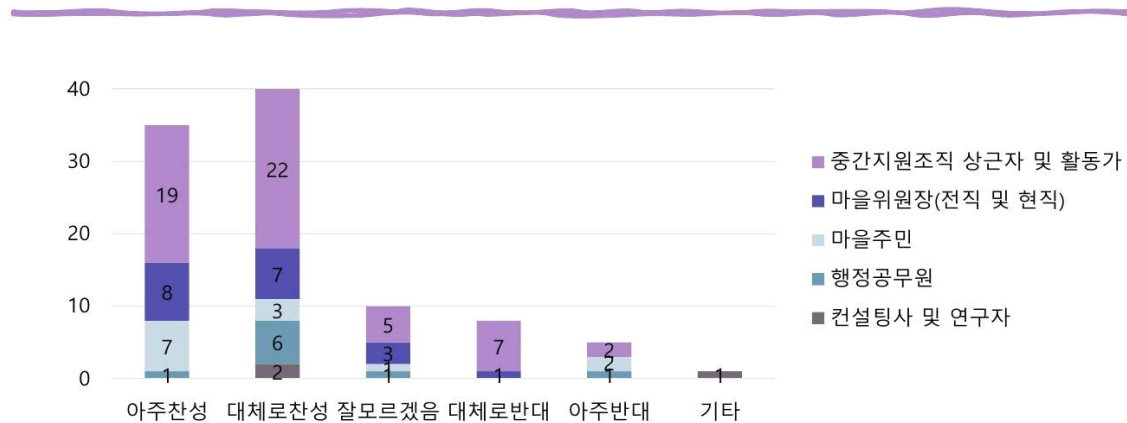


2021/07/30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2

쟁점5. 센터 상근자의 인사권은 법인의 고유 권한으로 행정기관이 관여하면 안된다.



※기타

- 법인이 주도하되 센터장(혹은 사무국장까지)은 행정과 협의하여 공개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1/07/30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3

기타 자유의견



기대와 조언의 목소리

- 급하게 만드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제대로 된 법인이 될 수 있다. 설립 후 운영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왜 마을 네트워크 법인이 필요하고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지역에서 **충분한 토의가 진행되어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된 후** 만들어져야 한다.
- 법인 이사진의 공동학습이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 단계 더 전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충남도 광역에서 **별도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광역에서든 지자체든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의무 교육이나 기초 소양 등 뭔가 역량을 갖춰 출발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 마을 공통의 의제 발굴, 정책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에 보다 더 집중하며 **마을간 정보공유와 리더 및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다.
- 공동체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법인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면 좋겠다.

2021/07/30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5



기대와 조언의 목소리

- 아직은 수익사업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민과 관의 협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법인,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이 상호이해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인은 현재의 법인의 성격을 잘 알고 운영해야 한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문제이다. 정치적이나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 행정과 주민간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순수한 법인이었으면 좋겠다.
- 마을 네트워크 법인이 고인물이 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흘러가야 한다. 법인의 공공성, 개방성을 **계속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조금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

2021/07/30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6



우려의 목소리

- **법인 내에서의 소통이 힘들다.** 네트워크 단체를 만들기도 힘든데 법인까지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잘되면 좋겠지만 구성원들이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법인이 중간지원조직을 **왜 수탁 받는 지 기본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사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 직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법인이 되면 좋겠다. **모시는 주체가 아닌 함께 하는 주체가 되길 바란다.** '직원의 목숨 줄을 쥐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중간지원조직 직원의 역량을 의심하기 전에 법인 이사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 법인 자원 조달이 궁금하다.
- 독주는 막아야 한다.



제3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아산)

【3부】 종합토론

“수탁법인의 효율적·민주적 운영방안”

- 좌장: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 쟁점토론자: 사례발표자 5인, 행정1, 센터1, 외부1명
- 주요 쟁점(예시)
 - * 네트워크 법인의 설립경로에 따른 운영실태 비교
 - * 민간위탁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 * 수탁법인의 수익사업 영역과 가능성
 - * 수탁법인으로 재단법인의 장단점 검토
 - * 수탁법인의 중장기 미래상 등

메 모 장

[illegible]

메 모 장

[illegible]

메 모 장

[illegible]

메 모 장

[illegible]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ChungNam Institute

제3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아산)

【참고자료】

**“2020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 워크숍 현장스케치”**

[현장 스케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 워크숍

2020년 7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충남개발공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충남도청,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주관으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생활방역의 일환으로 입장 전에 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였다. 본 행사에는 중간지원조직 수탁법인 임원과 센터 상근자, 담당 공무원 등 45명이 참석하였고, 충남도청 김미화 민관협치팀장과 충남연구원 강마야 박사, 고경호 단국대 겸임교수 등도 참관하였다.

<1부> 발제 및 시군 현황 발표에서는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센터장의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과 운영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이어 8개 시군이 설치 유형별, 개소시기 순서로 현재 상황을 발표하였다. (민간위탁: 천안, 예산, 홍성, 보령, 서천, 금산; 재단법인: 청양, 부여)



그림 138 구자인 센터장의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과 운영을 둘러싼 쟁점 발표

구자인 센터장은 기초발제에서 2015년부터 추진해온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과 10대 핵심과제’를 먼저 설명하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제도적 측면과 설치 유형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포괄적으로 소개하였다.

“행정직영과 달리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은 행정과 센터, 수탁법인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측면에

서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하지만 시군마다 설치 및 운영 상황이 다르다 보니 쟁점 토론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부분도 많다. (중략) 장기적으로 볼 때 행정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중간조직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략)

중간지원조직은 ‘중간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책토론 측면에서는 좁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간지원조직은 좁게 보자면 마을만들기 조례에 근거한 공공성이 있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중략) 민간위탁은 조례에 규정된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제도이고, 민간보조는 민간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중략)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과 재단법인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각각에서 장단점이 있고, 시군 특성을 반영하여 선택해왔다. (중략) 청양과 부여는 민간의 수탁법인 설립이 쉽지 않았다는 점, 기존에 이미 작은 재단법인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단법인 유형을 선택한 셈이다. 어느 하나만의 선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과 수탁법인, 센터 상근자 등이 모여 공동학습과 토론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측면과 지역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갈등관계를 예방할 수 있다.“

이후, 천안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송예영 사무국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8개 시군 순서로 현재 지역 현황과 참석자 소개가 있었다. 참석자수는 시군별로 2명에서 6명까지 매우 다양하였는데, 행정직영 센터에서 참관 차원에서 방문한 시군도 있었다.



그림 139 부여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윤보연 팀장의 현황 발표

<2부> 쟁점토론에서 구자인 센터장은 “중간지원조직의 민간 운영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였다. (각각의 토론내용과 각 센터 사무국장들이 제출한 서면의견 결과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토론쟁점 1] ‘행정의 정책 전문역량 강화 : 행정지원체계가 정비되어야 행정도 센터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토론쟁점 2] ‘수탁법인의 자치역량 강화 : 민간 수탁법인 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토론쟁점 3] ‘중간지원조직의 현장 전문성 강화 : 제도적 상황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그림 140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박상우 사무국장의 의견 개진

참관자로 참석했던 김미화 팀장은 “사람이 중요하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지만 새로 들어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다행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 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응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에서 팀을 넘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다. 때로는 시군 마을만들기협의회 등 민간에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그림 141 충남도청 김미화 팀장의 의견 개진

구자인 센터장은 “마을만들기지방정 협의회와,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관 전국조직에서 오늘 쟁점 관련하여 여러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 이번 국회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전체 흐름을 보면서 충남도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라고 정리하였다.



그림 142 45명이 워크숍에 참여하여 열띤 토론 진행

<부 록>

[표 76] 쟁점 1: “행정지원체계가 정비되어야 행정도 센터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요내용:

- ① 총괄조정부서는 주민자치 업무를 포함하여 ‘과’ 규모가 적절하다.
- ② 행정지원협의회 운영은 반드시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정기 운영해야 한다.
- ③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보직기간 준수, 전문 직위제 도입, 민간전문가 채용 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구분	쟁점(해결과제와 제안·권유 사항)
행정의 입장 혹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관련과가 신설되고 단체장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업무담당자의 실무교육 필요. 주기적인 교육. 도 차원에서 공무원끼리의 토론, 학습자리 필요 · 예산군은 팀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생산기반 업무가 분리되지 않아 인원충원이 필요. 행정담당자가 임기제 공무원이라 업무 지속성과 센터와의 소통구조도 형성됨 · 업무 특성상 임기제공무원도 힘든 업무라 생각함 · 금산군은 전문관 제도 범위에 미포함된 상태임. 승진, 보직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 특성상 기피하는 업무분야라고 생각함 · 임기제도 5년이라 더 연장하여 신분보장이 필요함
수탁법인의 입장 혹은 지원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군은 초기에 민간 전문직을 채용하여 전담하도록 하거나 전문관제도를 적극 도입함. 하지만 지금은 인사이동으로 센터와 연결해주는 전담자가 없어 소통이 안됨. 센터와 행정을 연결해주는 전문직 전담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찬성하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는 마을만들기 업무의 어려움을 알고 그런 업무를 좋아하는 사람, 창의성 있는 사람이 필요함. 경험적으로 임기제 여부가 아니라 ‘성격 좋은’ 사람이 중요함. 따라서 채용시에 담당자의 성향과 자세 파악이 필요함. 또 발령 전에 도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 5년 임기안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도 필요함
지원센터의 입장, 혹은 지원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부서의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마을만들기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업무인지도가 높은 직원이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러움 · 공무원도 시군별로 서로의 애로사항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 민간에서의 응원과 배려도 필요함 · 소통과 협력 차원에서 센터에 공무원 파견도 검토하고, 민관합동 비전워크숍도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함. 민간법인 설립을 공론화하는 공개토론회 개최, 올해의 공무원상 제정 등도 필요함 · 행정지원협의회는 년2회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전문관제도를 모르는 단체장도 있으니 홍보가 필요함. 민간쪽에서 전문관이 필요한 업무라고 요구하고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함 · 서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도 같이 고민해야 함. 행정과 센터가 협의해서 업무매뉴얼 작성도 검토해야 함

[표 77] 쟁점 2: “민간 수탁법인 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주요내용:**

- ① 법인의 별도 상근자 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상임이사는 상징정보다 시간적/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외부 전문가가 이사로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② 행정은 인큐베이팅 관점에서 수탁법인의 성장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위탁수수료(혹은 이에 준하는 일반관리비)를 인정하고, 별도 보조사업/소액연구용역 등으로 법인 경영 측면을 배려해야 한다.
- ③ 지원센터도 ‘월급 받는’ 상근자 입장에서 수탁법인 업무를 의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수탁법인의 자치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관련 사업을 당연히 배치해야 한다.

구분	쟁점(해결과제와 제안·권유 사항)
수탁법인의 입장 혹은 지원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수수료가 반드시 있어야 함. 협약서에 법인에 대한 고려사항이 들어 있지 않음. 담당 행정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에서 도와주면 법인의 운영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음(청년멘토육성사업, 청년학교 등 보령시 사례). 행정에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법인에 주면 도움이 됨. 위탁수수료가 규정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터놓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함 · 시민사회 활성화가 시급함. 금산군은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회원모집에 노력중이고, 한달에 한번 지속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운영하려고 노력 중임 · 행정에서 사단법인 위탁에서 재단법인으로 큰 고민과 협의 없이 전환하는 것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 토론과 논의의 장이 필요함. 법인 산하에 부설연구소를 만들어 연구용역도 했지만 지속적인 유지는 쉽지 않음. 법인을 중심으로 민간의 다양한 주체를 모으고, 행정은 민간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을 지원해야 함
지원센터의 입장, 혹은 지원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군은 협의를 통해 행정에서 위탁수수료 5% 내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바뀐 담당 팀장이 현재는 불편해함 · 수수료를 줘야 한다는 규정도 주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음. 행정의 재량 사항임. 지방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해석해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행안부가 연구용역중이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음 · 법인의 회원 모집 및 관리로 자생력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민간이 토론을 통해 법인을 만들었으나 행정에서 재단법인을 일방적으로 추진함. 행정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 · 인큐베이팅 관점에서 민간의 자생력을 의도적으로 육성해야 함

[표 78] 쟁점 3: “제도적 상황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주요내용:**

- ①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상근자의 인건비를 더 높이고 정규직 전환, 대체 근무, 육아 휴직 등 더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행정의 의무사항이고, 수탁법인도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 ② 센터의 설치, 운영 기간이 짧고 구체적인 성과도 부족한 상황에서 근무환경 개선 요구는 과도하다. 센터 상근자도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먼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지역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 ③ 상근자의 전문성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나 교재, 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너무 부족하다. 스스로 학습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전문 연수원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구분	쟁점(해결과제와 제안·권유 사항)
행정의 입장 혹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큼. 인적 자원으로서는 키워주는 관점을 가져야 함 · 같은 과내에서도 팀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니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함 · 민간에서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주길 바람
수탁법인의 입장 혹은 지원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에 장기근무자가 늘어나면서 행정과 법인, 센터의 관계성 정리됨. 신입 상근자의 경우 센터의 정체성, 역할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광역에서 교육자리(대화마당 같은)를 정기적으로 마련해줬으면 함
지원센터의 입장, 혹은 지원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센터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함.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기 때문인데 충남의 경우에는 시군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기에 공통적인 매뉴얼을 만들기 어려움 · 청양군은 재단법인이 되면서 연봉제를 하려고 직원의 성과평가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음. 재단법인의 경우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마련할 수 있지만,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 임기제공무원이 없으면 행정 정보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사라지니 보완책이 필요함. 사람을 하나 키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행정에서는 한 명의 근무인력으로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음 · 센터장이 비상근이 되면 형식적인 자리가 되기 쉬우므로 상근체계가 좋다고 생각함. 그리고 행정이 법인을 왜 지원해주지 않느냐는 논의는 시민사회 자율성 관점에서 보자면 문제 소지가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함

[기타쟁점]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

[공동학습을 위한 기본자료] 중간지원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선결

- ①마을만들기 조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행정의 지원체계, 정책위원회 등
- ②민간위탁 조례: 위탁기간, 위탁절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등
- ③수탁법인 정관: 설립목적, 사업영역, 조직체계, 행재정절차 등
- ④민간위탁 협약서: 협약기간, 위탁 사무, 사업액수, 인력(정원), 운영위원회 등
- ⑤사무편람: 운영위원회 구성, 센터장/사무국장 전결 규정, 근태관리 등
- ⑥협약을 통해 승인된 사업 및 예산계획서 등

[표 79] 기타쟁점

구분	쟁점(해결과제와 제안·권유 사항)
행정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이 되면 행정의 역할과 인력은 줄여도 된다. · 조례의 정책위원회(협의회)와 행정지원협의회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 · 지원센터 업무는 행정사무이기에 보조사업이 아닌 위탁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 지원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행정은 직접 업무 지시를 자제해야 한다.
수탁법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법인의 이사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수탁법인은 반드시 다양한 정책 영역의 민간 네트워크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 · 수탁법인 이사장은 반드시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담당해야 한다. · 사무편람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좋다.
지원센터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적어도 반상근) 센터장이 근무하도록 행정과 법인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중간지원조직은 통합형 설치가 바람직하고,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를 1순위로 생각해야 한다. · 가능하면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이 재단법인 설립보다 바람직하다.

[각 쟁점별 시군 서면 의견]

[토론쟁점 1] “행정지원체계가 정비되어야 행정도 센터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분	애로사항, 해결과제, 제안·권유 사항
행정의 입장 혹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단체장의 인식 개선 필요. 업무담당자의 주기적 실무교육 필요. 지속적인 토론 및 학습자리 필요 · (홍성) 행정도 ‘과’ 신설에 찬성하지만 스스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임. 농촌협약 등 변화되는 제도 속에서 과 단위 조직개편 지향 · (예산) 농업정책지원과 신설 희망 · (서천) 위탁후 행정 관여 범위(사업진행, 채용, 운영 등) 문제 토론 필요 · (금산)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의 관심유발 필요. 주기적인 공무원 내부 학습과 민관(부서간)합동 비전워크숍 필요. 민간전문가는 센터장보다 사무국장 채용이 더 필요. 전문직위제는 지정 가능토록 정무적 지원 필요 · (청양) 농촌공동체과 신설했지만 팀 업무분장 조정 필요. 행정협의체 구축 필요. 전문직위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 전문관 제도 반대, 기피 팀으로 오히려 가려고 안 함. 현실적, 실질적으로 불가능
수탁법인의 입장 혹은 지원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센터와 행정을 연결해 주는 전문직의 전담화 필요 · (홍성) 행정과 법인간 소통이 예전만 못함. 행정인력 자주 바뀌면서 점차 수동적인 소통이 됨. 행정 전문직 활용하여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 · (보령) 발령받은 신규 공무원 교육 필수. 임기제 공무원 필요. 창의성 있는 공무원, 성격 좋은 공무원이 마을만들기사업과 부합되는 인재다 · (예산) 임기제 공무원 신분보장 필요 · (서천) 법인 자체사업 필요(법인자생방안). 마을만들기지원사업, 후방지원 · (금산) 행정간막이에 대한 공론화(의제화): 공개토론회 개최.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지원-올해의 공무원상, 언론활용 등 · (청양) 재단 이사회와 행정지원협의회 연계 방법 고민. 각 팀별 직무분석 · (부여) '과' 규모 적절하지만 행정지원협의회 필요
지원센터의 입장, 혹은 지원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급을 임기제로 해서 행정망과 연결 필요. 담당부서의 전담인력 필요 · (홍성) 행정담당자 바뀌면 처음부터 소통(사업설명) 필요하니 힘들. 전문관 제도 적극 요구해야 할 것 · (보령) 역량강화 교육은 업무단일화 필요(부서팀 내). 유사 업무간 행정부서 정기회의 필요 · (서천) 수탁시 공통의 회계업무 등 매뉴얼화, 사무서류의 기본 매뉴얼 필요 · (금산) 행정매뉴얼 등에 대한 이해 우선되어야. 타 영역 센터간 협의(논의)구조부터 만들어야 · (청양) 행정에서 정보 안주면 몰라. 담당자도 자주 변경됨 · (부여) 현재 통합과로 운영되고 있어서 업무에 도움이 됨. 도시재생팀과 자치협력팀이 맡고 있는 사업과 연계할 일이 있었는데 서로 협조가 잘됨. 반면 연계사업 정리하는 과정에서 타부서에 찾아갔는데 관계없는 일이라고 협조가 안 되는 경험 있었음

[토론쟁점 2] 민간 수탁법인 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구분	애로사항, 해결과제, 제안·권유 사항
행정의 입장 혹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민관이 협치될 수 있는 토론장의 마련과 민간위탁에 대한 공동의 학습장 필요 · (홍성) 위탁수수료도 지침이나 제도가 있어야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 · (보령) 위탁수수료가 고민됨 · (예산) 수탁법인 인큐베이팅 관점으로 접근중 · (서천) 수탁법인이 주체가 되는 자체사업 방안 마련 필요. 위탁수수료를 통한 법인역량 높일 방안 연구 · (금산)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비율). 민간역량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 · (청양) 일자리 부서에서 협의회와 법인에 일자리 활동비 지원
수탁법인의 입장 혹은 지원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센터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위탁수수료가 있어야 한다. (조례제정)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협약체결이 보장되어야 한다(사단법인의 과실이 없는 한). 토론장이 필요, 민간법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를 모으고 행정은 민간의 역량을 키우는데 지원해야 함 · (홍성) 법인과 센터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 있음. 법인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소 등 자체사업 필요. 센터 위탁시 수수료 등 만들어야 함 · (보령) 위탁수수료는 도의회 조례 제정과 표준협약서 검토 필요(민간법인

	<p>입장 배려) 각종 보조사업을 통해 인건비 확보 필요(법인 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수탁법인 상근자 채용 환경 조성. 수탁법인 자체사업 개발 시행. 위탁수수료 지원 · (서천) 법인 멤버들에 대한 역량강화 포럼 · (금산) 민간조직다운, 민간조직답게 노력. 법인 상근자 채용. CMS회원 확보부터(자생력 확보 우선, 청년활동가 연계사업 활용->고용안정화)). 민간조직의 운영경험 축적. 행정과 대등하고 긴장된 관계 유지 · (청양) 결국은 그 이사진. 마을만들기협의회 인큐베이팅-간사역할 시군역량강화사업 천만원 활용 · (부여) 이런 것이 재단법인의 장점
지원센터의 입장, 혹은 지원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행정 재량으로 수수료 지급유무가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법제화 필요. 민간법인은 회원제로 회원모집 및 관리를 통해 자생력 확보 노력 필요 · (홍성) 센터는 법인에 속한 것. 법인사람임을 분명히 해야 함 · (보령) 위탁수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예산 지원 필요. 법인 내부 업무 담당 직원 필요. 법인이사도 자체 학습조직을 정기적으로 가졌으면(현재는 내부 결속력 부족, 사업이해도 격차 해소 필요) · (예산) 수탁법인 업무 지원 필요 · (서천) 법인 산하 지원센터의 역할 분류로 접근 · (금산) 법인 안정화를 위한 업무지원(행정+사업연계) 필요 · (청양) 재단법인이 100%행정출연이라 결국에는 행정 하부조직이 될 우려

[토론쟁점 3] 제도적 상황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구분	애로사항, 해결과제, 제안·권유 사항
행정의 입장 혹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정보의 공유. 역량강화 교육 및 참여기회 제공.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기대 요구가 큼. 인적자원으로서 키워주는 관점을 가져야 함. 행정 간 칸막이가 높음, 과장님의 역할 중요 · (보령) 시간외 근무 지원(2020년부터) · (서천)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중간지원조직 근무환경 고민, 인력충원... · (금산) 고용안정화, 근무환경 개선(인건비) · (청양) 행정연수원 필요(신규직원)
수탁법인의 입장 혹은 지원해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신입의 경우 센터의 정체성,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자리 필요.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취지를 이해하고 법인과 행정 그리고 센터의 역할 및 정체성을 파악해야 함 · (홍성)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해결방안 제시 교육 등 · (예산) 센터직원 과도한 업무 자체 · (서천) 중간지원조직 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 (금산) 센터와의 역할분담(사무편람-시스템 구축). 법인 수입구조 마련(센터<법인), 부설조직 · (청양) 농촌 공익형 재단, 이제 '구슬 잘 꿰기' 필요 · (부여) 더 좋은 근무환경 제공해야. 계속 교육시켜서 처우향상 역량 강화. 전문성 높여야. 성과평가보다 처우개선이 우선. 전문연수원 찬성
지원센터의 입장, 혹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지속적인 분야별 전문화된 교육 필요.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복지 혜택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어려움을 행정이 인정하여 지속적인 근무여건 보장. 행정의 정보망을 함께 공유 가능하도록 개선. 고용의 안정화.

지원해야 할 일	<p>조직관리 및 역량제고에 어려움이 있어 상근 센터장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경우가 있음 · (보령) 상근 센터장 필요. 법인과 업무구분 필요. 내부역량강화 연차별 지원필요. 관리자 또는 중간관리자가 팀원 애로사항 적극 수용. 상담 및 대화스킬 교육 필요. 마을만들기, 지역에 대한 철학과 이해교육 또는 선배의 경험 적극 공유. 가능하다면 수당체계 지원 필요 · (예산) 상근자 복리후생 보장 필요 · (서천) 센터 직원들의 자발적 교육 및 자체 전문성 강화. 직원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 (금산) 전문성, 현장성 강화. 전문연수원 설립 · (청양) 농촌 현장 현실 인식 -> 더 높은 질 좋은 일자리. 사람키우기 중심. 전문 연수원 꼭 필요 · (부여) 고용이 불안정함->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부족.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고유사업을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데 성과가 평가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음, 그 안에 상근자가 계속 교체된다면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하기는 어려움 -> 전문연수원 필요성은 의견 보류, 하지만 프로그램은 꼭 필요
----------	--